

『醫學入門 · 臟腑條分』中 腎臟에 작용하는 藥物에 관한 研究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 圓光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韓醫情報學科² · 한국전통의학연구소³
이석재² · 맹학영² · 금경수^{1,2,3} * · 황우준² · 이시형^{1,2,3}

A Study on the Medicines Effecting the Kidney in the 'Jangbujomun(臟腑條分)' of Uihak-ipmun(醫學入門)

Lee Seok-jae² · Maeng Hack-young² · Keum Kyung-soo^{1,2,3*} · Hwang Woo-jun² · Lee Si-hyeong^{1,2,3}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²Dept. of Professional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Informatics

³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this dissertation, I will focus on the channel entry[歸經] and the effect and the treatment [效能主治] in oriental medicine texts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in order to classify the medicines of the kidney.

Medicines that effected the Kidney through working on any other viscera were as follows:

Fossilia Ossid Mastodi(龍骨), Schizandrae Fructus(五味子), Nelumbinis Semen(蓮肉), Ostreae Testa(牡蠣), Polygalae Folium(小草), Angelicae Gigantis Radix(當歸), Albizziae Cortex(合歡), Thujae Semen(栝子仁) and Bambusae Calulis in Liqumamen(竹瀝).

This study was dedicated to researching the medicines related to the kidney and making efficient use of these medicines.

Key words : Uihak-ipmun(醫學入門), Jangbujomun(臟腑條分), 腎臟(kidney)

I. 緒論

人體는 有機體的인 總體로서 生理的으로는 相互
連繫、相互制約、相互補助하여 陰平陽秘의 상태에

* 교신저자 : 금경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전
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344-2

Tel : 063-850-6846 E-mail : kskeum@wonkwang.ac.kr
접수일(2009년 4월 24일), 수정일(2009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2009년 5월 15일)

이르고, 病理的으로도 影響을 미친다. 그래서 『靈樞·
本輸』에서 “肺는 大腸과 서로 表裏이고, 心은 小腸
과 서로 表裏이고, 肝은 膽과 서로 表裏이고, 脾는 胃
와 서로 表裏이고, 腎은 膀胱과 表裏이다.”¹⁾이라 하
여 臟과 腑가 서로 하는 임무는 다르지만 生理와 病

1) 河北醫學院校釋. 靈樞經校釋(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62. “肺合大腸, 心合小腸, 肝合膽, 脾合胃, 腎合膀胱”

理分野를 막론하고 모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五臟穿鑿論'에서 “心과 膽이 相通하고, 肝과 大腸이 相通하고, 脾와 小腸이 相通하고, 肺와 膀胱이 相通하고, 腎과 三焦가 相通하고, 腎과 膀胱이 相通한다.”²⁾고 하였으며, 『難經』에 “가령 心病이 肺로 전해지면 肺는 肝으로 전하고 肝은 脾로 전하고 脾는 腎으로 전하고 腎은 心으로 전한다. 가령 心病이 脾로 전해지면 脾는 肺로 전하고 肺는 腎으로 전하고 腎은 肝으로 전하고 肝은 心으로 전한다.”³⁾라 하여 五臟의 病이 相互 傳移되는 것을 알 수 있다. 『素問·五藏生成論』에 “心臟의 配合는 脈이고 榮華는 顏色에 나타나고 主宰者(克我者)는 腎臟이며, …… , 腎臟의 配合는 骨이고 榮華는 髮에 나타나고 主宰者는 脾臟이다”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의 “主”는 制約, 相克을 의미하는 말로서 五臟이 서로 相互 制約의 관계로서 影響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五臟六腑는 相互 制約, 相互 輔助함으로서 서로 影響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藥物治療에 있어서도 本臟으로 作用하는 藥物을 사용해서 腎臟을 다스리기도 하며, 他臟으로 作用하는 藥物을 사용해서도 腎臟을 다스리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病이 傳變하는 것을 抑制하여 治療의 目的을 거두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著者は 臨床에서 藥物의 作用機轉을 밝히기 위해서 『醫學入門·臟腑條分』中 腎臟에 配屬된 藥物을 가지고 古代에서 現代에 이르는 本草書의 歸經, 效能, 主治를 比較 分析한 結果 약간의 識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2) 李梴, 醫學入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72. “ ‘五臟穿鑿論’ : 心與膽相通(心病怔忡, 宜溫膽爲主; 膽病戰慄癡狂, 宜補心爲主), 肝與大腸相通(肝病宜疏通大腸, 大腸病宜平肝經爲主), 脾與小腸相通(脾病宜瀉小腸火, 小腸病宜潤脾土爲主), 肺與膀胱相通(肺病宜清利膀胱水, 後用分利清濁; 膀胱病宜清肺氣爲主, 兼用吐法), 腎與三焦相通(腎病宜潤和三焦, 三焦病宜補腎爲主), 腎與膀胱相通(津液胃虛, 宜大補右腎)”

3) 滑壽原注.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編譯. 難經本義.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233. “七傳者傳其所勝也, 間藏者傳其子也, 假令心病傳肺, 肺傳肝, 肝傳脾, 脾傳腎, 腎傳心, …… , 假令心病傳脾, 脾傳肺, 肺傳腎, 腎傳肝, 肝傳心, ……”

4) 素問研究集成. 黃帝內經·素問(第一卷). 金星印刷社. 大邱. 2001. p.364. “心之合脈也, 其榮色也, 其主腎也, …… , 腎之合骨也, 其榮髮也, 其主脾也”

II. 研究方法 및 研究對象

본 研究에서는 『醫學入門·臟腑條分』中 腎臟에 作用하는 藥物을 調査하였다.

2.1 研究背景

『醫學入門』은 1575년에 16世紀 明代의 醫家 李梴이 지은 醫書로서, 外感、內傷、雜病 및 臨床各科의 疾病이 알기 쉽게 論述되었으며, 醫學을 배우는 자세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되어 醫學普及促進에 기여한 醫學入門書이다.⁵⁾

특히 『醫學入門』의 本草篇에서는 臨床에 있어 本草를 쉽게 응용하기 위해서 藥物의 效用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本草分類方式에 있어서도 다른 本草書의 自然分類方式과는 다르게 藥性分類方式(治風門、治熱門、治濕門、治燥門、治寒門、治瘡門、治食門)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된 藥物中 常用하는 藥物을 『醫學入門』의 臟腑條分에서는 補瀉溫涼으로 나누어 각 臟腑에 배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각 臟腑에 配屬된 藥物中 일부 藥物은 配屬된 臟腑와 效能、主治面에서는 관련성이 적지만 本質의 으로는 관련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서 여러 本草書를 통하여 配屬된 臟腑와의 關聯性與否를 分析하게 되었다.

李梴이 『醫學入門』에서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臟腑病理와 臨床治療方面으로부터 臟腑가 서로 相通한다는 理論이다.⁶⁾ 이는 臟腑間에는 서로 傳變이 이루어지고 治療에 있어서도 他臟을 다스려서 本臟의 病을 治療할 수 있다는 論據가 된다.

이를 근거로 著者は 臟腑條分中에서 腎臟部 藥物을 著名한 本草書들을 통해서 本臟에 주로 作用하

5)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28, 241.

6) 李梴, 醫學入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72. “ 『五臟穿鑿論』 : 心與膽相通(心病怔忡, 宜溫膽湯; 膽病戰慄癡狂, 宜補心爲主), 肝與大腸相通(肝病宜疏通大腸, 大腸病宜平肝經爲主), 脾與小腸相通(脾病宜瀉小腸火, 小腸病宜潤脾土爲主), 肺與膀胱相通(肺病宜清利膀胱水, 後用分利清濁; 膀胱病宜清肺氣爲主, 兼用吐法), 腎與三焦相通(腎病宜潤和三焦, 三焦病宜補腎爲主), 腎與膀胱相通(津液胃虛, 宜大補右腎)”

는 藥物과 他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로 먼저 다음 歷代 本草書들 속에서 關聯藥物을 찾아 研究分析해 보았다.

書籍名	著者	出版社	地域	年度
本草求真	黃宮綉	醫聖堂	서울	1907
申氏本草學	申佶求	高文사	서울	1971
中藥大辭典	江蘇新醫學院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6

표 1. 本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과 他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로 구분하기 위해 參考한 書籍

2.2 研究對象

『醫學入門·臟腑條分』中 腎臟條分の 原文에 配屬된 藥物은 총12종으로 補藥 3종(熟地 枸杞 鹿茸), 瀉藥 3종(苦茗 猪苓 琥珀), 溫藥 3종(沈香 菟絲 附子), 涼藥 3종(知母 黃柏 牡丹)이며, 註解에 배속된 藥物은 총36종으로 補藥 23종(鍾乳粉 龜板 龍骨 虎骨 五味子 鎖陽 山茱萸 杜仲 山藥 知母 蓮肉 芡實 覆盆子 桑螵蛸 牡蠣 小草 牛膝 當歸 玄蔘 石楠 合歡 五加皮 楮實), 瀉藥 2종(澤瀉 茯苓), 溫藥 8종(乾薑 肉桂 巴戟 葫蘆巴 補骨脂 柏子仁 烏藥 石南藤), 涼藥 3종(地骨皮 玄蔘 竹瀝)이다.⁷⁾

原文과 註解에서 중복되는 藥物은 知母(補藥:註解, 涼藥:原文), 玄蔘(補藥:註解, 涼藥:註解)로 2종이다.

以上 研究對象 藥物은 총46종으로 다음과 같다.

7) 李樞. 醫學入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69.
『醫學入門·臟腑條分』中 腎臟에 작용하는 藥物
補以 熟地 枸杞 鹿茸
鍾乳粉 龜板 龍骨 虎骨 五味子 鎖陽 山茱萸 杜仲 山藥 知母
蓮肉 芡實 覆盆子 桑螵蛸 牡蠣 小草 牛膝 當歸 玄蔘 石楠
合歡 五加皮 楮實
瀉必 苦茗 猪苓 琥珀
澤瀉 茯苓
溫以 沈香 菟絲 附子
乾薑 肉桂 巴戟 葫蘆巴 補骨脂 柏子仁 烏藥 石南藤
涼必 知母 黃柏 牡丹
地骨皮 玄蔘 竹瀝

區分	補	瀉	溫	涼
原文 藥材	熟地, 枸杞, 鹿茸	苦茗, 猪苓, 琥珀	沈香, 菟絲, 附子	知母, 黃柏, 牡丹
註解 藥材	鍾乳粉, 龜板, 龍骨, 虎骨, 五味子, 鎖陽, 山茱萸, 杜仲, 山藥, 知母, 蓮肉, 芡實, 覆盆子, 桑螵蛸, 牡蠣, 小草, 牛膝, 當歸, 玄蔘, 石楠, 合歡, 五加皮, 楮實	澤瀉, 茯苓	乾薑, 肉桂, 巴戟, 葫蘆巴, 補骨脂, 柏子仁, 烏藥, 石南藤	地骨皮, 玄蔘, 竹瀝
合	26	5	11	6

표 2. 研究對象 藥物

2.3 研究方法

1. 『醫學入門·臟腑條分』의 腎臟에 작용하는 藥物을 調査하기 위한 관련書籍 分析 및 先行研究를 살펴 보았다.

2. 『醫學入門·臟腑條分』의 腎臟藥物을 本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과 他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로 구분하기 위해 本草求真·申氏本草學·中藥大辭典을 調査하여 比較·分析하였다.

3. 本論에서는 腎臟에 配屬된 藥物을 補, 瀉, 溫, 涼의 順序로 分析해본다. 本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과 他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로 區分된 效能·主治는 本草의 嚆矢인 『神農本草經』을 비롯해서 『名醫別錄』·『日華子本草』를 위주로 參考하였으며⁸⁾, 그 외의 本草書들은 效能에 있어서 서로간의 중복을 최대한 피해서 신고자 하였다.

4.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引用 文獻에 대한 說明과 原文은 脚註로 處理하였다.

5. 本 論文에 사용한 부호로는 引用 文獻은 『』, 字句解는 단어와 각주로, 脚注는 ~로 표시하였다.

6. 強調해야 할 文句가 節인 경우에는 “ ”로 強調하였고 句인 경우에는 ‘ ’로 강조하였다.

8) 歷代本草書들에서 『神農本草經』·『名醫別錄』·『日華子本草』를 위주로 하여 引用하였던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Ⅲ. 本論

臟腑條分の 腎臟藥物을 本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과 他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⁹⁾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區分	藥物	本草求真	中藥大辭典	申氏本草學	臟腑	備考
補藥	熟地	專入腎 兼入肝	肝腎	心心包肝膽腎	腎肝心膽心包	
	枸杞	專入腎 兼入肝	肝腎	腎肝肺	腎肝肺	
	鹿茸	專入命門督 兼入肝	肝腎	腎心肝心包	腎肝心心包命門督	
	鍾乳粉	專入胃大腸	肺腎	胃大腸	腎肺胃大腸	
	龜板	專入腎 兼入心	肝腎	腎心肝脾	腎肝心脾	
	虎骨	專入肝	肝腎	肝腎	腎肝	
	鎖陽	專入腎 兼入大腸	肝腎	肝腎大腸	腎肝大腸	10)
	山茱萸	專入肝腎	肝腎	肝腎心	腎肝心	
	杜仲	專入肝	肝腎	腎肝	腎肝	
	山藥	專入脾 兼入肺腎	肺脾腎	肝肺脾腎	腎肝脾肺	
	芡實	專入脾腎	脾腎	脾胃心肝腎	腎肝心脾胃	
	覆盆子	專入腎	肝腎	肝腎	腎肝	
	桑螵蛸	專入肝腎膀胱	肝腎	肝腎	腎肝	
	牛膝	專入肝腎	肝腎	肺肝胃心包	腎肝肺胃心包	
	石楠	專入肝	肝腎	*	腎肝	
五加皮	專入肝腎	肝腎	肺肝腎	腎肝肺		
楮實	專入腎	肝脾腎	肝脾腎	腎肝脾		
瀉藥	苦茗	專入胃腎	心肺胃	*	腎肺心胃	
	豬苓	專入膀胱腎	脾腎膀胱	脾腎膀胱	腎脾膀胱	
	琥珀	專入心肝 兼入小腸腎	心肝小腸	心肝小腸胃	腎肝心胃小腸	
	澤瀉	專入膀胱腎	腎膀胱	脾肺腎小腸膀胱	腎脾肺膀胱小腸	
	茯苓	專入脾胃 兼入肺肝	心脾肺	心肺腎脾胃膀胱	腎肝心脾肺 胃膀胱	
溫藥	沈香	專入命門 兼入脾	腎脾胃	脾胃腎心肝肺	腎肝心脾肺 胃命門	
	菟絲	專入肝腎 兼入脾	心脾腎	脾腎膀胱三焦	腎心脾 膀胱三焦命門	

9) <他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로는 腎臟으로 歸經하지 않는 藥物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腎臟에 歸經은 하더라도 他臟에 歸經하는 것에 비해 作用力이 떨어지는 것 까지 포함시켰다.

10) 『申氏本草學』에 主治만 있고 歸經은 실려 있지 않아서 主治를 근거로 歸經을 추론해서 실음.

11) 『中藥大辭典』에서의 歸經은 主治를 근거로 해서 歸經을 실은 것이다. 『本草綱目』·『醫學入門』·『東醫寶鑑』에서의 石南藤의 主治를 보아도 肝·腎·肺로 歸經함을 알 수

區分	藥物	本草求真	中藥大辭典	申氏本草學	臟腑	備考
溫藥	附子	專入命門	心脾腎	脾腎膀胱三焦	腎心脾 膀胱三焦命門	
	乾薑	專入胃	脾胃肺	心肺脾胃腎大腸	腎心脾肺胃大腸	
	肉桂	專入命門肝	腎脾膀胱	脾心腎肝命門	腎肝心脾膀胱命門	
	巴戟	專入腎	肝腎	腎肝胃	腎肝胃	
	葫蘆巴	專入命門	腎肝	腎	腎肝命門	
	補骨脂	專入腎	腎	脾腎心包	腎脾心包	
	烏藥	專入胃腎 兼入脾肺膀胱	脾肺腎膀胱	胃腎脾肺膀胱	腎脾肺胃膀胱	
	石南藤	*	肝腎肺	*	腎肝肺	11)
涼藥	知母	專入肺 兼入腎	肺胃腎	胃肺脾腎	腎脾肺胃	12)
	黃柏	專入腎 兼入膀胱	腎膀胱	腎膀胱	腎膀胱	
	牡丹皮	專入心腎肝	心肝腎	*	腎肝心	
	地骨皮	專入肺腎	肺肝腎	*	腎肝肺	
	玄蔘	專入腎	肺腎	*	腎肺	13)

표 3. 本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

區分	藥物	本草求真	中藥大辭典	申氏本草學	臟腑	備考
補藥	龍骨	專入肝腎大腸 兼入心	心肝腎大腸	肝膽腎心大腸	腎肝心膽大腸	
	五味子	專入肺腎	肺腎	肺肝腎	腎肝肺	
	蓮肉	專入脾 兼入心腎	心脾腎	肺脾心腎胃	腎心脾肺胃	
	牡蠣	專入腎 兼入肝	肝腎	肝膽腎	腎肝膽	
	小草	專入腎	心腎	*	心腎	
	當歸	專入心	心肝脾	心肝脾	肝心脾	
	合歡	專入脾 兼入心	心肝	心脾	肝心脾	
溫藥	柏子仁	專入心	心肝脾	心脾肝腎	腎肝心脾	
涼藥	竹瀝	專入經絡皮裏 膜外	心胃	心肺 胃膽小腸膀胱	心肺胃膽小腸膀胱	

표 4. 他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

있다.

12) 『醫學入門·臟腑條分』에 知母는 涼藥 兼 補藥으로 되어 있음.

13) 『醫學入門·臟腑條分』에 玄蔘은 涼藥 兼 補藥으로 되어 있음.

3.1 腎臟의 生理·病理 및 治療

일찍이 『素問·脈要精微論』에 “허리는 腎臟의 府이다.”¹⁴⁾라 하여 腎이 腰部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醫宗必讀』에 ‘先天之本在腎’¹⁵⁾이라 하여 腎은 臟腑陰陽의 根本이고 生命의 根源임을 나타내었다. 『素問·上古天真論』에 “腎臟은 水를 주관하여 五臟六腑의 精을 받아서 간직하게 된다.”¹⁶⁾라 한 것은 腎이 저장한 水의 精은 五臟六腑에서 기원함을 설명한 것이다. 『素問·六節藏象論』에 “腎은 冬수를 主管하고 臟腑의 精을 받아 貯藏하므로 腎은 陽氣를 閉藏하는 근본이 되며 또 人體의 精氣가 貯藏되는 場所이기도 하다.”¹⁷⁾라 하여 腎이 精氣를 저장하여 人體의 生長、發育과 生殖能力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黃帝內經』에서는 腎이 其他臟腑·經絡 및 外部的인 환경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는데, 『素問·通評虛實論』에서는 “五臟이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六腑가 閉塞不通하게 됨으로써 조성된 것이다.”¹⁸⁾라 하였고, 『靈樞·本輸』에 “腎과 膀胱은 相互表裏가 되며, 膀胱은 津液을 저장하는 腑입니다. 足少陰經脈은 腎에 속하는데, 腎의 經脈은 上部의 肺로 이어지므로 腎의 經氣는 膀胱과 肺로 운행합니다. 三焦는 中瀆의 腑로서 水道가 이곳에서 나오며, 下部의 膀胱과 연계되어 있는데, (表裏가 되는 臟이 없으므로) 孤腑라고 합니다. 이는 六腑가 五臟과 배합하는 것입니다.”¹⁹⁾라 하였으며, 『素問·六節藏象論』에 “腎은 水에 屬하여 陰中之 少陰이므로 그 氣는 冬과 相通합니다.”²⁰⁾라 하였다.

『素問·咳論』에 “腎咳는 기침할 때 腰部와 背部가 서로 당기면서 아프고 심하면 기침할 때 涎을 흘립니다.”²¹⁾라 하였고, 또 “腎咳가 낫지 않으면 膀胱이 받게 되니 膀胱咳는 기침하면서 遺尿가 됩니다.”²²⁾라 하여 腎이 他臟腑와의 病理적인 關係를 반영한 것으로서, 腎의 病變은 其他臟腑病變에 影響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素問·氣厥論』에 “腎이 寒을 肝(脾)으로 轉移시키면 癰腫、少氣하게 되고……, 肺가 寒을 腎으로 轉移시키면 涌水가 되니 涌水는 腹部를 누르면 堅硬하지 않고 水氣가 大腸에 머물러 빨리 步行하면 주머니에 漿을 넣어 둔 것과 같이 출렁이는 腸鳴이 있으니, 水의 병입니다.”²³⁾라 하였고, 또한 “肺가 熱을 腎으로 轉移시키면 傳하여 柔瘻가 되고, 腎이 熱을 脾로 轉移시키면 傳하여 虛하게 되고 腸澼이 발병하여 죽으니 치료할 수가 없다.”²⁴⁾고 하여 臟腑의 氣가 逆行하면 寒熱이 서로 轉移되어 각종 疾病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治療에 있어서 『素問·藏氣法時論』에 “腎은 燥한 것으로 괴로워하니 급히 辛味를 먹어 이를 潤澤하게 하면 腠理가 열려 津液이 이르게 되어 氣가 通하게 됩니다.”²⁵⁾ “腎의 성질은 堅하려고 하니 급히 苦味를 먹어 堅燥하게 하여야 하니 苦味로서 補하고 鹹味로서 瀉한다.”²⁶⁾고 하여 本草의 氣味論을 이용하였고, 『靈樞·五邪』에 “邪氣가 腎에 있으면 骨痛·陰痺가 발생합니다. …… 湧泉穴과 崑崙穴을 取해야 한다.”²⁷⁾라 하여 臟病을 腑의 穴을 이용해서 治療할

14) 素問研究集成. 黃帝內經·素問(第二卷). 金星印刷社. 大邱. 2001. p.138. “腰者, 腎之府”
 15) 李中梓.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8.
 16) 素問研究集成. 黃帝內經·素問(第一卷). 金星印刷社. 大邱. 2001. p.19. “腎者主水, 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
 17) 素問研究集成. 黃帝內經·素問(第一卷). 金星印刷社. 大邱. 2001. p.343. “腎者主蟄, 封藏之本, 精之處也”
 18) 素問研究集成. 黃帝內經·素問(第三卷). 金星印刷社. 大邱. 2001. p.246. “五臟不平, 六腑閉塞之所生也”
 19) 裴秉哲譯. 今釋 黃帝內經 靈樞. 서울. 成輔社. 1978. p.42. “腎合膀胱, 膀胱者, 津液之府也. 少陰屬腎, 腎上連肺, 故將兩臟. 三焦者, 中瀆之府也, 水道出焉, 屬膀胱, 是孤之府也”
 20) 素問研究集成. 黃帝內經·素問(第一卷). 金星印刷社. 大邱.

2001. p.343. “腎者……, 爲陰中之少陰, 通于冬氣”
 21) 素問研究集成. 黃帝內經·素問(第四卷). 金星印刷社. 大邱. 2001. p.211. “腎咳之狀, 咳則腰背相引而痛, 甚則咳涎”
 22) 素問研究集成. 黃帝內經·素問(第四卷). 金星印刷社. 大邱. 2001. p.212. “腎咳不已則膀胱受之, 膀胱咳狀, 咳而遺溺”
 23) 素問研究集成. 黃帝內經·素問(第四卷). 金星印刷社. 大邱. 2001. p.191. “腎移寒於肝(脾), 癰腫少氣, ……肺移寒於腎, 爲涌水, 涌水者, 按腹不堅, 水氣客於大腸, 疾行則鳴濯濯, 如囊裹漿, 水之病也”
 24) 素問研究集成. 黃帝內經·素問(第四卷). 金星印刷社. 大邱. 2001. p.195. “肺移熱於腎, 傳爲柔瘻, 腎移熱於脾, 傳爲虛腸澼, 死不可治”
 25) 素問研究集成. 黃帝內經·素問(第三卷). 金星印刷社. 大邱. 2001. p.32. “腎苦燥, 急食辛以潤之, 開腠理, 致津液, 通氣也”
 26) 素問研究集成. 黃帝內經·素問(第三卷). 金星印刷社. 大邱. 2001. p.50. “腎欲堅, 急食苦, 以堅之, 用苦補之, 鹹瀉之”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2 本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

1. 補藥

1) 熟地

『珍珠囊』에 “主補血氣, 滋腎水, 益眞陰”²⁸⁾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填骨髓, 長肌肉, 生精血, 補五臟, 內傷不足, 通血脈, 利耳目. 黑鬚髮, 男子五勞七傷, 女子傷中胞漏, 經候不調, 胎產百病.”²⁹⁾이라 하였다.

『本草從新』에 “滋腎水, 封填骨髓, 利血脈, 補益眞陰, 聰耳明目, 黑髮烏鬚. 又能補脾陰, 止久瀉, 治勞傷風痺, 陰虧發熱, 乾咳痰水, 氣短喘促, 胃中空虛覺餒, 痘證心虛無膿, 病後脛股酸痛, 產後臍腹急疼, 感證陰虧, 無汗便閉, 諸種動血, 一切肝腎陰虧, 虛損百病, 爲壯水之主藥”이라 하였다.

『醫學入門』에 “補血填髓滋腎精, 療傷寒後腰股痛, 除新產罷腹臍疼”³⁰⁾이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대부분이 腎臟을 補하는 效能과 主治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現代의 本草書에서도 補藥으로 분류하고 있고 養血滋陰, 補精益髓라는 效能³¹⁾을 지니고 있어서 補腎하는 藥으로 配屬시킴을 알 수 있다.

2) 枸杞

『神農本草經』에 “主五內邪氣熱中, 消渴, 周痺, 久服堅筋骨, 輕身不老”³²⁾라 하였다.

『本草述』에 “療肝風血虛, 眼赤痛痒昏翳”, “治中風眩暈, 虛勞, 諸見血證, 咳嗽血, 痿, 厥, 攣, 消痺, 傷

燥, 遺精, 赤白濁, 脚氣, 鶴膝風”³³⁾이라 하였다.

『本草備要』에 “潤肺清肝, 滋腎益氣, 生精助陽, 補虛勞, 強筋骨, 祛風明目, 利大小腸”³⁴⁾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滋腎, 潤肺, 明目”³⁵⁾이라 하였다.

『東醫寶鑑』에 “補內傷大勞虛吸, 堅筋骨, 強陰, 療五勞, 七傷, 補益精氣, 易顏色, 變白, 明目安神, 令人長壽”³⁶⁾라 하였다.

上記의 效能에서는 ‘堅筋骨(強筋骨), 滋腎益氣, 生精助陽, 補益精氣’ 등이 腎臟을 補하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補肝하는 效能도 상당수 있는데 이는 肝腎同源과 水生木의 관계에 따라 補腎하는 것이 곧 補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現代의 本草書에서도 補肝腎하는 藥으로 分類하고 있으며, 滋補肝腎, 明目 등의 效能³⁷⁾이 있어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枸杞를 補腎藥으로 配屬시킴을 알 수 있다.

3) 鹿茸

『神農本草經』에 “主漏下惡血, 寒熱驚癇, 益氣強志, 生齒.”³⁸⁾라 하였다.

『名醫別錄』에 “療虛勞灑灑如瘡, 羸瘦, 四肢酸疼, 腰脊痛, 小便利, 泄精, 溺血, 破留血在腹, 散石淋, 癰腫, 骨中熱, 疽癢”³⁹⁾이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補虛羸, 壯筋骨, 破瘀血, 安胎下氣”⁴⁰⁾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生精補髓, 養血益陽, 強健筋骨.”⁴¹⁾이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中 ‘益氣強志, 生齒, 壯筋骨, 生精補髓, 養血益陽’의 效能이 있으며, ‘腰脊痛, 小便利, 泄精, 骨中熱, 補虛羸’을 다스린다는 것은 腎臟을 補하

27) 裴秉哲譯. 今釋 黃帝內經 靈樞. 서울. 成輔社. 1978. p.223. “邪在腎, 則骨痛, 陰痺, ……; 取之湧泉, 崑崙.”

28)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33.

29)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43.

30) 李樞. 醫學入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175.

31)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33.

32) 吳普. 神農本草經(卷一). 서울. 翰林社. 1976. p.38.

33)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519.

34) 汪昂.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123.

35)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97.

36) 許浚. 東醫寶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911.

37)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41.

38) 吳普. 神農本草經(卷二). 서울. 翰林社. 1976. p.27.

39)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80.

40)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58.

41)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63.

는 作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現代의 本草書에서도 腎을 補하는 藥으로 分類하고 있고, 補腎陽、益精血、強筋骨하는 效能⁴²⁾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補腎藥으로 配屬시킴을 알 수 있다.

4) 鐘乳粉

『神農本草經』에 “主咳逆上氣，明目益精，安五臟，通百節，利九竅，下乳汁.”⁴³⁾이라 하였다.

『名醫別錄』에 “益氣，補虛損，療脚弱疼冷，下焦傷竭，強陰”⁴⁴⁾이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補五勞七傷.”⁴⁵⁾이라 하였다.

『醫林纂要』에 “補命門，破痼冷，溫脾胃，生氣血.”⁴⁶⁾이라 하였다.

『本草求真』에 “暖肺納氣，治肺寒氣逆，喘咳痰清.”⁴⁷⁾이라 하였다.

上記의 ‘益精，安五臟，補命門，補五勞七傷，納氣’ 등의 效能은 腎을 補해야 나타날 수 있고, ‘療脚弱疼冷，下焦傷竭，強陰’ 등의 主治는 腎을 補하면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明目이라는 效能도 ‘肝腎同源’에 의거하여 腎을 補하면 된다. 現代의 本草書에서도 鐘乳粉은 補藥으로 分類되어 補腎壯陽하는 效能⁴⁸⁾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鐘乳粉을 補腎藥으로 配屬시킴을 알 수 있다.

5) 龜板

『神農本草經』에 “主漏下赤白，破癥瘕，瘵瘵，五痔，陰蝕，濕痺，四肢重弱，小兒凶不合”⁴⁹⁾이라 하였다.

『名醫別錄』에 “主頭瘡難燥，女子陰瘡，及驚恚氣，

心腹痛，不可久立，骨中寒熱，傷寒勞復，或肌體寒熱欲死，以作湯良，益氣資智，亦使人能食”⁵⁰⁾이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治血麻痺”⁵¹⁾이라 하였다.

『本草衍義』에 “補心”⁵²⁾이라 하였다.

『本草蒙筌』에 “專補陰衰，善滋腎損.”⁵³⁾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治腰脚酸痛，補心腎，益大腸，止久痢久泄，主難產，消癰腫.”⁵⁴⁾이라 하였다.

『醫學入門』에 “主內傷陰虛骨蒸寒熱，及勞倦骨痿，傷寒勞復肌體寒熱欲死”⁵⁵⁾이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小兒凶不合，不可久立，骨中寒熱，腰脚酸痛，內傷陰虛，勞倦骨痿’ 등의 效能과 主治는 腎을 補하면 다스릴 수 있고, ‘補陰，滋腎，益氣資智’ 등의 效能은 補腎과 관련이 있다. 現代의 本草書에서도 補藥으로 분류하여 滋腎潛陽，益腎健骨 등의 效能⁵⁶⁾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龜板을 補腎藥으로 配屬시킴을 알 수 있다.

6) 虎骨

『名醫別錄』에 “止驚悸，療惡瘡鼠瘻，頭骨尤良”⁵⁷⁾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追風定痛，健骨. 止久痢脫肛. 獸骨哽咽.”⁵⁸⁾이라 하였다.

『玉楸藥解』에 “療關節氣冷，治膝脛腫痛. 逐痺通關，強筋健骨，平歷節腫痛，愈腰膝痿軟”⁵⁹⁾이라 하였다.

『醫學入門』에 “主白虎痛風，筋骨體脛腰膝毒風學

42)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19.
43) 吳普. 神農本草經(卷一). 서울. 翰林社. 1976. p.5
44)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00.
45)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6.
46)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665.
47)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665.
48) 鄒長青編著. 中藥袖珍辭典. 湖南省.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6. p.618.
49) 吳普. 神農本草經(卷一). 서울. 翰林社. 1976. p.48.

50)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93.
51)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76.
52) 寇宗奭. 本草衍義. 서울. 醫聖堂. 1994. p.117.
53) 陳嘉謨. 本草蒙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422.
54)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44.
55) 李樾. 醫學入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150.
56)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43.
57)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82.
58)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52.
59) 黃元御. 玉楸藥解. 黃元御醫書11種 下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17.

急疼痛. 兼治溫瘧滑痢.”⁶⁰)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中‘健骨, 療關節, 治膝腫痛, 強筋健骨, 愈腰膝痠軟, 筋骨脾脛腰膝毒風攣急疼痛’등은 補腎과 관련이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祛風濕藥으로 분류하고 強筋健骨하는 效能⁶¹⁾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虎骨을 補腎하는 藥으로 配屬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7) 鎖陽

『本草綱目』에 “潤燥養筋. 治痿弱.”⁶²⁾이라 하였다.

『本草從新』에 “補陰, 益精興陽. 治滑大腸⁶³⁾”이라 하였다.

『東醫寶鑑』에 “閉精, 補陰氣, 虛而大便燥結者, 煮粥食之.”⁶⁴⁾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中에‘治痿弱, 補陰, 益精興陽’등은 補腎과 관련한 效能과 主治이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補藥에 속하고 補腎助陽의 效能⁶⁵⁾을 지니고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鎖陽을 補腎하는 藥物로 配屬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8) 山茱萸

『神農本草經』에 “主心下邪氣寒熱, 溫中, 逐寒濕痺, 去三蟲.”⁶⁶⁾이라 하였다.

『雷公炮炙論』에 “壯元氣, 秘精.”⁶⁷⁾이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暖腰膝, 助水臟, 除一切風, 逐一切氣, 破癥結, 治酒齏.”⁶⁸⁾라 하였다.

『用藥珍珠囊』에 “溫肝. 主心下邪氣, 暖腰膝, 助水臟, 除一切風, 逐一切冷.”⁶⁹⁾이라 하였다.

『醫學入門』에 “補腎氣, 興陽道, 堅長陰莖, 添精髓, 止遺精及小便利, 去頭風骨痛, 風氣去來, 鼻塞鼻鼈, 目黃, 耳鳴耳聾, 面抱面瘡, 腸胃風邪赤驗”⁷⁰⁾이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中‘壯元氣, 秘精, 暖腰膝, 助水臟, 補腎氣, 興陽道, 堅長陰莖, 添精髓, 止遺精及小便利, 去頭風骨痛, 耳鳴耳聾’등은 補腎과 관련한 效能과 主治이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收澁藥에 포함시키고 補益肝腎, 收斂固澁하는 效能⁷¹⁾을 지니고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山茱萸를 補腎하는 藥物로 配屬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9) 杜仲

『神農本草經』에 “主腰痛, 補中益精氣, 堅筋骨, 強志, 除陰下瘕濕, 小便餘瀝.”⁷²⁾이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治腎勞, 腰脊攣. 入藥多用.”⁷³⁾이라 하였다.

『藥性論』에 “治腎冷, 暨腰痛; 腰病人虛而腎強直, 風也, 腰不利, 加而用之”⁷⁴⁾라 하였다.

『本草備要』에 “潤肝燥, 補肝虛. 治腰膝酸痛, 陰下濕痺, 小便餘瀝, 胎漏, 胎墮”⁷⁵⁾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中‘主腰痛, 益精氣, 堅筋骨, 強志, 除陰下瘕濕, 治腎勞, 腰脊攣, 治腎冷, 暨腰痛’등의 主治와 效能은 腎과 관련이 있고, ‘潤肝燥, 補肝虛’는 肝을 補하는 效能인데‘肝腎同源’에 근거하여 補腎과 관련이 있다.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補藥으로 分類시켰으며 補肝腎, 強筋骨하는 效能⁷⁶⁾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杜仲을 補腎하는 藥物로 配屬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60) 李梴. 醫學入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136.

61)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86.

62)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14.

63) 吳儀洛. 本草從新. 서울. 杏林書院. 1972. p.17.

64) 許浚. 東醫寶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890.

65)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30.

66) 吳普. 神農本草經(卷二). 서울. 翰林社. 1976. p.24.

67) 雷斅. 雷公炮炙論. 中華醫書集成 第5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23.

68)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28.

69) 李東垣. 用藥珍珠囊.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22.

70) 李梴. 醫學入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195.

71)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55.

72) 吳普. 神農本草經(卷一). 서울. 翰林社. 1976. p.42.

73)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16.

74)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23.

75) 汪昂.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125.

76)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22.

10) 山藥

『神農本草經』에 “主傷中，補虛羸，除寒熱邪氣，補中益氣力，長肌肉，久服耳目聰明”⁷⁷⁾이라 하였다.

『名醫別錄』에 “主頭面游風，頭風眼眩，下氣，止腰痛，治虛勞羸瘦，充五臟，除煩熱”⁷⁸⁾이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助五臟，強筋骨，長志安神，主泄精健忘.”⁷⁹⁾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益神氣，健脾胃，止泄利，化痰涎，潤皮毛.”⁸⁰⁾라고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久服耳目聰明，止腰痛，治虛勞羸瘦，充五臟，除煩熱，強筋骨，長志，主泄精’ 등은腎과 관련이 있으며，現代의 本草書에서는 補藥에 分類시키고 補脾肺腎하는 效能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山藥을 補腎하는 藥物로 配屬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芡實

『日華子本草』에 “開胃助氣.”⁸¹⁾라 하였다.

『神農本草經』에 “主濕痺腰脊膝痛，補中除暴疾，益精氣，強志，令耳目聰明.”⁸²⁾이라 하였다.

『本草從新』에 “補脾固腎，助氣澁精，治夢遺滑精，解暑熱酒毒，療帶濁泄瀉，小便不禁.”⁸³⁾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止渴益腎，治小便不禁，遺精，白濁，帶下.”⁸⁴⁾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主濕痺腰脊膝痛，益精氣，強志，令耳目聰明，固腎，澁精，治夢遺滑精，療帶濁泄瀉，小便不禁，白濁，帶下’ 등의 主治와 效能은 腎과 관련이 있으며，現代의 本草書에서는 收澁藥으로 分類시키고 補脾去濕，益腎固精하는 效能⁸⁵⁾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芡實을 補腎하는 藥物에 配屬시

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覆盆子

『名醫別錄』에 “主益氣輕身，令髮不白”⁸⁶⁾이라 하였다.

『藥性論』에 “男子腎精虛竭陰痿，能令堅長，女子食之有子”⁸⁷⁾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安五臟，益顏色，養精氣，長髮，強志，療中風身熱及驚.”⁸⁸⁾이라 하였고，또한 “益腎臟，縮小便”라 하였다.

『開寶本草』에 “補虛續絕，強陰建陽，悅澤肌膚，安和臟腑，溫中益力，療勞損風虛，補肝明目”⁸⁹⁾이라 하였다.

『本草蒙筌』에 “治腎傷精竭流滑”⁹⁰⁾이라 하였다.

『本草備要』에 “益腎臟而固精，補肝虛而明目，起陽痿，縮小便，澤肌膚，烏髭發，女子多孕”⁹¹⁾이라 하였다.

上記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腎과 관련이 있으며，現代의 本草書에서는 收澁藥으로 分類시키고 益腎固精縮尿의 效能⁹²⁾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覆盆子를 補腎하는 藥物로 配屬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桑螵蛸

『神農本草經』에 “主傷中，疝瘕，陰痿，益精生子，女子血閉腰痛，通五淋，利小便水道”⁹³⁾라 하였다.

『名醫別錄』에 “療男子虛損，五臟氣微，夢寐失精，遺尿”⁹⁴⁾라 하였다.

『本草衍義』에 “治小便白濁”⁹⁵⁾이라 하였다.

86)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88.

87)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58.

88)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92.

89)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699.

90) 陳嘉謨. 本草蒙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p.321.

91) 汪昂.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96.

92)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57.

93) 吳普. 神農本草經(卷一). 서울. 翰林社. 1976. p.48.

94)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89.

77) 吳普. 神農本草經(卷一). 서울. 翰林社. 1976. p.16.

78)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26.

79)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35.

80)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10.

81)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95.

82) 吳普. 神農本草經(卷一). 서울. 翰林社. 1976. p.51.

83) 吳儀洛. 本草從新. 서울. 杏林書院. 1972. p.165.

84)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09.

85)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55.

『玉楸藥解』에 “治遺精失溺，經閉陽痿，帶濁淋漓，耳痛喉痺，癩疔骨鯁”⁹⁶⁾이라 하였다.

上記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腎과 관련이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收澁藥으로 분류시키고 補腎助陽，固精縮尿하는 效能⁹⁷⁾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桑螵蛸를 補腎하는 藥物로 配屬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牛膝

『名醫別錄』에 “療傷中少氣，男腎陰少，老人失溺，補中續絕，填骨髓，除腦中痛及腰痛，婦人月水不通，血結，益精，利陰氣，止發白”⁹⁸⁾이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治腰膝軟怯冷弱，破癥結，排膿止痛，產後心腹痛並血暈，落胎，壯陽”⁹⁹⁾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治久瘡寒熱，五淋尿血，莖中痛，下痢，喉痺，口瘡，齒痛，癰腫惡瘡，傷折”¹⁰⁰⁾이라 하였다.

『本草經疏』에 “走而能補，性善下行”¹⁰¹⁾이라 하였다.

『本草正』에 “主手足血熱痿痺，血燥拘攣，通膀胱澁秘，大腸乾結，補髓填精，益陰活血”¹⁰²⁾이라 하였다.

『本草備要』에 “足厥陰、少陰經藥，能引諸藥下行，酒蒸則益肝腎，強筋骨，治腰膝骨痛，足痿筋攣，陰痿失溺，久瘡，下痢，傷中少氣”¹⁰³⁾이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男腎陰少，老人失溺，填骨髓，除腰痛，益精，利陰氣，止發白，壯陽，治五淋尿血，莖中痛，益陰活血，治腰膝骨痛，足痿筋攣，陰痿失溺’ 등

이 腎과 관련이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活血祛瘀藥으로 分類를 시켰지만 補肝腎，強筋骨，利尿通淋의 效能¹⁰⁴⁾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牛膝을 補腎하는 藥物로 配屬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石楠

『神農本草經』에 “主養腎氣，內傷陰衰，利筋骨皮毛”¹⁰⁵⁾라 하였다.

『名醫別錄』에 “療脚弱，五臟邪氣，除熱”¹⁰⁶⁾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浸酒飲治頭風”¹⁰⁷⁾이라 하였다.

『醫林纂要』에 “潤腎補肝，壯命門火”¹⁰⁸⁾라 하였다.

『本草備要』에 “補內傷陰衰，利筋骨皮毛，爲治腎虛，脚弱，風痺要藥，婦人不可久服，令思男”¹⁰⁹⁾이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養腎氣，內傷陰衰，利筋骨，療脚弱，潤腎補肝，壯命門火’ 등은 腎과 관련하여 補하는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祛風濕，強筋骨하는 效能¹¹⁰⁾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石楠을 補腎하는 藥物로 配屬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五加皮

『神農本草經』에 “主心腹疝氣，腹痛，益氣療瘵，小兒不能行，疔瘡陰蝕”¹¹¹⁾이라 하였다.

『雷公炮炙論』에 “作末浸酒飲，治目僻眼..”¹¹²⁾라

95) 寇宗奭. 本草衍義. 서울. 醫聖堂. 1994. p.115.

96) 黃元御. 玉楸藥解. 黃元御醫書11種 下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19.

97)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57.

98)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34.

99)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38.

100)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46.

101)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60.

102) 張介賓. 景岳全書(二). 서울. 驪江出版社. 1987. p.348.

103) 汪昂.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18.

104)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59.

105) 吳普. 神農本草經(卷三). 서울. 翰林社. 1976. p.23.

106)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245.

107)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00.

108)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606.

109) 汪昂.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135.

110) 中國中醫研究院. 廣州中醫學院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85.

111) 吳普. 神農本草經(卷一). 서울. 翰林社. 1976. p.40.

112) 雷斅. 雷公炮炙論. 中華醫書集成 第5冊. 北京. 中醫古籍

하였다.

『名醫別錄』에 “療男子陰痿，囊下濕，小便餘瀝，女人陰癢及腰脊痛，兩脚疼痺風弱，五緩虛羸，補中益精，堅筋骨，強志意”¹¹³⁾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明目，下氣，治中風骨節攣急，補五勞七傷”¹¹⁴⁾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治風濕痿痺，壯筋骨”¹¹⁵⁾이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小兒不能行，療男子陰痿，囊下濕，小便餘瀝，女人陰癢及腰脊痛，兩脚疼痺風弱，五緩虛羸，補中益精，堅筋骨，強志意，治中風骨節攣急，補五勞七傷’ 등의 효능과主治가 腎과 관련이 있으며，現代의 本草書에서는 祛風濕藥에 分類시키고 強筋骨의 효능¹¹⁶⁾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五加皮를 補腎하는 藥物로 配屬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7) 楮實

『名醫別錄』에 “主陰痿水腫，益氣，充肌膚，明目”¹¹⁷⁾이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壯筋骨，助陽氣，補虛勞，助腰膝，益顏色”¹¹⁸⁾이라 하였다.

『本草備要』에 “助陽氣，起陰痿，補虛勞，壯筋骨，明目充肌”¹¹⁹⁾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陰痿水腫，壯筋骨，助陽氣，補虛勞，助腰膝，益顏色，起陰痿’ 등의 효능과主治는 腎과 관련이 있으며，現代의 本草書에서는 補藥으로 分類시키고 滋腎、清肝、明目的 효능¹²⁰⁾이 있어서 『醫

學入門·臟腑條分』에서 楮實을 補腎하는 藥物로 配屬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2. 瀉藥

1) 苦茗

『本草經集註』에 “好眠”¹²¹⁾이라 하였다.

『湯液本草』에 “治中風昏憤，多睡不醒”¹²²⁾이라 하였다.

『醫學入門』에 “主去痰熱煩渴，清頭目，悅神醒神，令人少睡，下氣消息，止瀉及赤白痢，利大小便；兼治氣壅腰疼，轉動不得，心痛不可忍，并濃煎熱服，冷則聚痰。”¹²³⁾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吐風熱痰涎”¹²⁴⁾이라 하였다.

『中藥大辭典』에 “清頭目，除煩渴，化痰，消食，利尿，解毒。治頭痛，目昏，多睡善寐，心煩口渴，食積痰滯，癰，痢”¹²⁵⁾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悅神醒神，下氣消息，止瀉及赤白痢，利大小便，腰疼，利尿’ 등이 腎과 관련이 있으며，이 외에 ‘去痰熱煩渴，清頭目，吐風熱痰涎’ 등의 中風 및 痰과 관련한 내용은 清熱、消食、利尿시키면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腎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清頭目、除煩渴、消食、利尿、止瀉 등의 효능¹²⁶⁾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苦茗을 瀉腎하는 藥物로 配屬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2) 猪苓

『神農本草經』에 “主痰癰，利水道”¹²⁷⁾라 하였다.

『珍珠囊』에 “滲泄，止渴，又治淋腫”¹²⁸⁾이라 하였

1996. p.651.

121)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602.

122) 王好古. 湯液本草. 서울. 醫聖堂. 1994. p.148.

123) 李梴. 醫學入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227.

124)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95.

125)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601.

126) 中國中醫研究院. 廣州中醫學院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039.

127) 吳普. 神農本草經(卷二). 서울. 翰林社. 1976. p.25.

出版社. 1999. p.10.

113)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47.

114)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18.

115)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96.

116)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85.

117)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41.

118)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21.

119) 汪昂.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126.

120) 鄒長青. 中藥袖珍辭典.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다.

『醫學啓源』에 “大燥除濕. 『主治秘要』云, 去心中懊懣”¹²⁹⁾이라 하였다.

『醫學入門』에 “治中暑消渴, 解傷寒溫疫大熱發汗, 主核瘡”¹³⁰⁾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開腠理, 治淋, 腫, 脚氣, 白濁, 帶下, 妊娠子淋, 小便不利”¹³¹⁾라 하였다.

上記의 ‘利水道, 滲泄, 治淋, 腫, 脚氣, 白濁, 帶下, 妊娠子淋, 小便不利’ 등의 效能과 主治가 腎과 관련이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猪苓을 利水滲濕藥으로 分類시키고 利水滲濕의 效能¹³²⁾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猪苓을 瀉腎하는 藥物로 配屬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3) 琥珀

『名醫別錄』에 “主安五臟, 定魂魄, 消瘀血, 通五淋”이라 하였다.

『本草拾遺』에 “止血生肌, 合金瘡”¹³³⁾이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壯心, 明目磨翳, 止心痛, 癩邪, 破結癥”¹³⁴⁾이라 하였다.

『本草蒙筌』에 “治榮而安心利水”¹³⁵⁾라 하였다.

『玉楸藥解』에 “涼肝清肺, 磨障翳, 止驚悸, 除遺精白濁, 下死胎胞衣, 敷疔拔毒, 止渴除煩, 滑胎催生”¹³⁶⁾이라 하였다.

上記의 內容 중 ‘通五淋, 利水, 除遺精白濁’ 등은 腎과 관련이 있으며 ‘明目, 生肌, 涼肝’ 등의 肝과 關

련한 內容은 水生木에 근거하여 肝을 瀉하면 腎도 瀉해지는 結果를 초래하므로 腎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琥珀을 安神藥으로 分類시켰으나 利尿通淋의 效能¹³⁷⁾이 있어서 腎을 瀉하는 藥物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琥珀을 瀉腎하는 藥物로 配屬시킨 것을 알 수 있다.

4) 澤瀉

『神農本草經』에 “主風寒濕痺, 乳難, 消水, 養五臟, 益氣力, 肥健”¹³⁸⁾이라 하였다.

『名醫別錄』에 “補虛損五勞, 除五臟痞滿, 起陰氣, 止泄精, 消渴, 淋瀝, 逐膀胱, 三焦停水”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治五勞七傷, 主頭旋, 耳虛鳴, 筋骨攣縮, 通小腸, 止遺瀝·尿血”¹³⁹⁾이라 하였다.

『醫學啓源』에 “治小便淋瀝, 去陰間汗, 『主治秘結』云, 入腎經, 去舊水, 養新水, 利小便, 消腫瘡, 滲泄止渴”¹⁴⁰⁾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滲濕熱, 行痰飲, 止嘔吐, 瀉利, 疝痛, 脚氣”¹⁴¹⁾라 하였다.

上記의 內容중 主風寒濕痺, 消水, 起陰氣, 止泄精, 耳虛鳴, 筋骨攣縮, 治小便淋瀝, 滲濕熱, 滲濕熱 등은 腎과 관련이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利水滲濕藥으로 分類시키고 利水滲濕, 泄熱의 效能¹⁴²⁾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澤瀉를 瀉腎하는 藥物로 配屬시킨 것을 알 수 있다.

5) 茯苓

『神農本草經』에 “主胸脅逆氣, 憂恚驚邪恐悸, 心下結痛, 寒熱煩滿, 咳逆, 口焦舌乾, 利小便”¹⁴³⁾이라

128)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192.

129) 張元素. 醫學啓源. 中華醫書集成 第22冊.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9. p.45.

130) 李梴. 醫學入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164.

131)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16.

132)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96.

133)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91.

134)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277.

135) 陳嘉謨. 本草蒙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219.

136) 黃元御 撰. 玉楸藥解. 黃元御醫書11種 下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96.

137)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91.

138) 吳普. 神農本草經(卷一). 서울. 翰林社. 1976. p.19.

139)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89.

140) 張元素. 醫學啓源. 中華醫書集成 第22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45.

141)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80.

142)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96.

143) 吳普. 神農本草經(卷一). 서울. 翰林社. 1976. p.39.

하였다.

『名醫別錄』에 “止消渴, 好睡, 大腹, 淋瀝, 膈中痰水, 水腫淋結, 開胸膈, 調臟氣, 伐腎邪, 長陰, 益氣力, 補腎守中”¹⁴⁴⁾이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補五勞七傷, 安胎, 暖腰膝, 開心益智, 止健忘”¹⁴⁵⁾이라 하였다.

『傷寒明理論』에 “滲水緩脾”¹⁴⁶⁾라 하였다.

『醫學啓源』에 “除濕益燥, 利腰臍間血, 和中益氣爲主. 治小便不通, 溺黃或赤而不利. 『主治秘結』云, 止瀉, 利小便, 除虛熱, 開腠理, 生津液”¹⁴⁷⁾이라 하였다.

『王好古』에 “瀉膀胱, 益脾胃治, 腎積奔豚”¹⁴⁸⁾이라 하였다.

『藥徵』에 “主治悸及肉瞤筋惕, 旁治小便不利, 頭眩煩躁”¹⁴⁹⁾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利小便, 淋瀝, 水腫淋結, 伐腎邪, 長陰, 安胎, 暖腰膝, 滲水, 除濕, 治小便不通, 溺黃或赤而不利’ 등은腎과 관련이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利水滲濕藥으로 分類시키고 利水滲濕이라는 效能¹⁵⁰⁾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茯苓을 瀉腎하는 藥物로 配屬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瀉藥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 일반적으로 腎에는 補法은 있으나 瀉法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醫學入門』에서는 瀉腎하는 藥物이 나오니 어찌된 일일까? 『筆花醫鏡』에 “腎無實症”¹⁵¹⁾이라 하였는데 實症이 없으니 瀉法도 없다

는 뜻이다. 『醫學入門』에 “五臟 俱有補瀉 惟腎 有補無瀉”¹⁵²⁾라 한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腎에 瀉法이 없으니 瀉藥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醫學入門·臟腑條分』中 瀉藥에서의 瀉의 의미는 다른 臟腑에서처럼 폭넓은 瀉의 의미가 아닌 利尿, 利水滲濕의 效能만을 내포한다.

3. 溫藥

1) 沈香

『名醫別錄』에 “療風水毒腫”¹⁵³⁾이라 하였다.

『海藥本草』에 “主心腹痛·霍亂·中惡, 精神, 並宜酒煮服之; 諸瘡腫宜入膏用”¹⁵⁴⁾이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調中, 補五臟, 益精壯陽, 暖腰膝, 去邪氣. 止轉筋·吐瀉·冷氣, 破癥瘕, 治冷風痲痺, 骨節不妊, 濕風皮膚癢, 心腹痛, 氣痢”¹⁵⁵⁾라 하였다.

『用藥珍珠囊』에 “調中, 補五臟, 益精壯陽, 補腎暖腰膝, 去風水毒腫, 去惡氣邪氣”¹⁵⁶⁾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治上熱下寒, 氣逆喘息, 大腸虛閉, 小便氣淋, 男子精冷”¹⁵⁷⁾이라 하였다.

『醫林纂要』에 “堅腎, 補命門, 溫中·調脾濕, 瀉心, 降逆氣, 凡一切不調之氣皆能調之. 並治噤口毒痢及邪惡冷風寒痺”¹⁵⁸⁾라 하였다.

『東醫寶鑑』에 “主風水毒腫, 去惡氣, 止心腹痛, 益精壯陽, 治冷風痲痺, 霍亂吐瀉·轉筋”¹⁵⁹⁾이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益精壯陽, 暖腰膝, 治冷風痲痺, 骨節不妊, 治小便氣淋, 男子精冷, 堅腎, 補命門’ 등은

144)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6.

145)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13.

146) 成無已. 申榮日, 金善鎬 譯. 傷寒明理論. 서울. 周珉出版社. 2003. p.298.

147) 張元素. 醫學啓源. 中華醫書集成 第22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45.

148)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598.

149) 東洞吉益. 藥徵. 皇漢醫學叢書 第14卷. 서울. 平凡出版社. 1975. p.57.

150)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95.

151) 江涵暉. 筆花醫鏡.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38.

152) 編註醫學入門. 李樾.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202.

153)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64.

154) 五大·李珣 共著. 海藥本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40.

155)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18.

156) 雷李東垣. 用藥珍珠囊.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21.

157)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25.

158)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171.

159) 許浚. 東醫寶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915.

腎과 관련이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理氣藥으로 分類시키고 溫腎納氣하는 效能¹⁶⁰⁾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沈香을 溫腎하는 藥物로 配屬시킴을 알 수 있다.

2) 菟絲

『神農本草經』에 “主續絕傷, 補不足, 益氣力. 肥健人, 久服明目.”¹⁶¹⁾이라 하였다.

『雷公炮炙論』에 “補人衛氣, 助人筋脈”¹⁶²⁾이라 하였다.

『名醫別錄』에 “養肌強陰, 堅筋骨, 主莖中寒, 精自出, 溺有餘瀝, 口苦燥渴, 寒血爲積”¹⁶³⁾이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補五勞七傷, 治泄精, 尿血, 潤心肺”¹⁶⁴⁾이라 하였다.

『本草備要』에 “強陰益精, 溫而不燥, 不助相火. 治五勞七傷, 精寒淋瀝, 口苦燥渴. 祛風明目, 補衛氣, 助筋脈, 益氣力, 肥健人.”¹⁶⁵⁾이라 하였다.

『東醫寶鑑』에 “主莖中寒, 精自出, 尿有餘瀝, 口若燥渴, 添精益髓, 去腰痛, 膝冷”¹⁶⁶⁾이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主續絕傷, 養肌強陰, 堅筋骨, 主莖中寒, 精自出, 溺有餘瀝, 治泄精, 尿血, 治精寒淋瀝, 添精益髓, 去腰痛, 膝冷’ 등은 腎과 관련이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補藥으로 分類시키고 補陽益陰, 固精縮尿하는 效能¹⁶⁷⁾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菟絲子를 溫腎하는 藥物로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다.

3) 附子

『神農本草經』에 “主風寒咳逆邪氣, 溫中, 金瘡,

破癥堅積聚, 血瘕, 躄寒濕蹠, 拘攣膝痛, 不能行步”¹⁶⁸⁾라 하였다.

『名醫別錄』에 “脚疼冷弱, 腰脊風寒, 心腹冷痛, 霍亂轉筋, 下痢赤白, 堅肌骨, 強陰, 又墮胎, 爲百藥長”¹⁶⁹⁾이라 하였다.

『醫學啓源』에 “『主治秘要』云, 去臟腑沉寒; 補助陽氣不足, 溫暖脾胃”¹⁷⁰⁾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治三陰傷寒, 陰毒寒疝, 中寒中風, 痰厥氣厥, 柔痊癰瘤, 小兒慢驚, 風濕麻痺, 腫滿脚氣, 頭風, 腎厥頭痛, 暴瀉脫腸, 久痢脾泄, 寒瘡瘴氣, 久病嘔噦, 反胃噎膈, 癰疽不斂, 九漏冷瘡.”¹⁷¹⁾라 하였다.

『本草備要』에 “補腎命火, 逐風寒濕”¹⁷²⁾이라 하였다.

『本草從新』에 “治瘡痘灰白, 癰疽不斂, 一切沈寒痼冷之證”¹⁷³⁾이라 하였다.

『東醫寶鑑』에 “補三焦厥逆, 六腑寒冷, 寒濕, 痿躄, 墮胎, 爲百藥長.”¹⁷⁴⁾이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拘攣膝痛, 不能行步, 脚疼冷弱, 腰脊風寒, 堅肌骨, 強陰, 風濕麻痺, 腫滿脚氣, 腎厥頭痛, 暴瀉脫腸, 補腎命火, 逐風寒濕’ 등은 腎과 관련이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附子를 溫腎藥으로 分類시키고 回陽救逆, 補火助陽, 散寒止痛하는 效能¹⁷⁵⁾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附子를 溫腎하는 藥物로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다.

4) 乾薑

『神農本草經』에 “主胸滿咳逆上氣, 溫中·止血·出汗, 逐風濕痺, 腸澀下痢”¹⁷⁶⁾라 하였다.

『名醫別錄』에 “治汗冷腹痛, 中惡·霍亂·脹滿, 風邪諸毒, 皮膚間結氣, 止唾血”¹⁷⁷⁾이라 하였다.

160)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22.

161) 吳普. 神農本草經(卷一). 서울. 翰林社. 1976. p.14.

162) 雷斅. 雷公炮炙論.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6. p.12.

163)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48.

164)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43.

165) 汪昂.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96.

166) 許凌. 東醫寶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885.

167)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28.

168) 吳普. 神農本草經(卷三). 서울. 翰林社. 1976. p.5.

169)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235.

170) 張元素. 醫學啓源. 中華醫書集成 第22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41.

171)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00.

172) 汪昂.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89.

173) 吳儀洛. 本草從新. 서울. 杏林書院. 1972. p.72.

174) 許凌. 東醫寶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903.

175)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08.

176) 吳普. 神農本草經(卷二). 서울. 翰林社. 1976. p.6.

『日華子本草』에 “消痰，下氣，治轉筋，吐瀉，腹藏冷，反胃乾嘔，瘀血撲損，止鼻洪，解冷熱毒，開胃，消宿食”¹⁷⁸⁾이라 하였다.

『醫學啓源』에 “『主治秘要』云，通心氣助陽，去臟腑沉寒，發散諸經之寒氣，治感寒腹痛”¹⁷⁹⁾이라 하였다.

『醫學入門』에 “炮薑，溫脾胃，治裏寒水泄，下痢腸澼，久瘧，霍亂，心腹冷痛脹滿，止鼻衄，唾血，血痢，崩漏”¹⁸⁰⁾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대부분의 效能과 主治들이 脾胃陽虛와 관련이 있다. 이는 土不制水와 火不生土함에 근거한 것이다.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溫裏藥으로 分類시키고 溫中回陽하는 效能¹⁸¹⁾이 있으며, 炮薑은 乾薑에 비해 腎으로 작용함이 더욱 더 顯著하니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乾薑을 溫腎하는 藥物로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다.

5) 肉桂

『神農本草經』에 “主上氣咳逆，結氣喉痺吐吸，利關節，補中益氣”¹⁸²⁾라 하였다.

『名醫別錄』에 “主心痛，脊風，脇痛，溫筋，通脈，止煩，出汗”이라 하였다. 또한 “主溫中，利肝肺氣，心服寒熱，冷疾，霍亂轉筋，頭痛，腰痛，止睡，咳嗽，鼻鼈；能墮胎，通血脈，理疎不足；宣導百藥，無所畏”¹⁸³⁾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治一切風氣，補五勞七傷，通九竅，利關節，益精，明目，暖腰膝，破瘀癥瘕，消瘀血，治風痺，骨節攣縮，續筋骨，生肌肉”¹⁸⁴⁾이라 하였다.

『用藥珍珠囊』에 “溫中，利肺氣，發散表邪，去營衛中風寒。秋冬治下部腹痛，非肉桂不能止”¹⁸⁵⁾이라

하였다.

『醫學啓源』에 “補下焦火熱不足，治沈寒痼冷之病，及表虛自汗. 『主治秘要』云：滲泄止渴”¹⁸⁶⁾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治寒痺，風痞，陰盛失血，驚癇”이라 하였고, 또한 “治陽虛失血，內托癰疽痘瘡，能引血化汗化膿，解蛇蝮毒”¹⁸⁷⁾이라 하였다.

『申氏本草學』에 “溫中，平肝，益肺，助陽，通經，強筋骨，利血脈，治腰痛、心腹痛”¹⁸⁸⁾이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利關節，腰痛，益精，暖腰膝，骨節攣縮，續筋骨，補下焦火熱不足，治沈寒痼冷之病，治寒痺，治陽虛失血’ 등은 腎과 관련이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溫裏藥으로 分類시키고 補火助陽，散寒止痛，溫通經脈의 效能¹⁸⁹⁾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肉桂를 溫腎하는 藥物로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다.

6) 巴戟

『神農本草經』에 “主大風邪氣，陰痿不起，強筋骨，安五臟，補中增志益氣”¹⁹⁰⁾라 하였다.

『名醫別錄』에 “療頭面遊風，小腹及陰中相引痛，下氣，補五勞，益精”¹⁹¹⁾이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安五臟，定心氣，除一切風，治邪氣，療水腫”¹⁹²⁾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治脚氣，去風疾，補血海”¹⁹³⁾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主陰痿不起，強筋骨，增志，療小

177)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58.
178)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59.
179) 張元素. 醫學啓源. 中華醫書集成 第22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 41.
180) 李樞. 醫學入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188.
181)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09.
182) 吳普. 神農本草經(卷一). 서울. 翰林社. 1976. p.37.
183)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36.
184)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15.

185) 雷李東垣. 用藥珍珠囊.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16.
186) 張元素. 醫學啓源. 中華醫書集成 第22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41.
187)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20.
188)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73. p.21.
189)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09.
190) 吳普. 神農本草經(卷一). 서울. 翰林社. 1976. p.20.
191)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245.
192)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43.
193)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23.

腹及陰中相引痛, 益精, 療水腫, 治脚氣' 등은 腎과 관련이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補藥으로 分類시키고 補腎助陽하는 效能¹⁹⁴⁾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巴戟을 溫腎하는 藥物로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다.

7) 葫蘆巴

『本草綱目』에 “治冷氣疝瘕, 寒濕脚氣; 益右腎, 暖丹田”¹⁹⁵⁾이라 하였다.

『本草備要』에 “治腎臟虛冷, 陽氣不能歸元, 瘦疝冷氣, 寒濕脚氣”¹⁹⁶⁾라 하였다.

『申氏本草學』에 “壯元陽, 煖丹田, 逐寒濕, 理脚氣, 治疝瘕, 毆脹滿腹脇(本草類辨)”¹⁹⁷⁾이라 하였다.

『醫學入門』에 “治腎冷, 面青腹脹如鯁, 膀胱疝痛腎虛寒, 壯陽消痰力最猛”¹⁹⁸⁾이라 하였다.

上記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腎과 관련이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補藥으로 分類시키고 溫腎陽, 逐寒濕하는 效能¹⁹⁹⁾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葫蘆巴를 溫腎하는 藥物로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다.

8) 補骨脂

『日華子本草』에 “興陽事, 治冷勞, 明耳目”²⁰⁰⁾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治腎泄, 通命門, 暖丹田, 斂精神”²⁰¹⁾이라 하였다.

『玉楸藥解』에 “溫暖水土, 消化飲食, 升達脾胃, 收斂滑泄, 遺精, 帶下, 溺多, 便滑諸證”²⁰²⁾이라 하였

다.

『醫學入門』에 “主房勞過多, 腎經有傷, 腰痛, 陰囊濕痒, 陽衰精冷自流, 骨髓傷敗, 小便利, 腹中冷, 易泄; 又治風虛冷痺, 四肢疼痛及婦人氣血墮胎, 兼目耳明”²⁰³⁾이라 하였다.

上記의 대부분의 내용이 腎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補骨脂를 補藥으로 分類시키고 補腎壯陽, 固精縮尿하는 效能²⁰⁴⁾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補骨脂를 溫腎하는 藥物로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다.

9) 烏藥

『本草拾遺』에 “主中惡心腹痛, 宿食不消, 天行疫瘴, 膀胱腎間冷氣功衝背脊, 婦人氣血, 小兒腹中諸蟲”²⁰⁴⁾이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治一切氣, 除一切冷, 霍亂及反胃, 吐食, 瀉痢, 癰癤, 疥癩, 並解冷熱”²⁰⁵⁾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治中氣, 脚氣, 疝氣, 氣厥頭痛, 腫脹喘息, 止小便數及白濁”²⁰⁶⁾이라 하였다.

『本草備要』에 “能疎胸腹邪逆之氣. 治中氣、中風, 及膀胱冷氣, 小便頻數, 反胃吐食, 宿食不消, 瀉痢霍亂, 女人血凝氣滯, 小兒蛔蟲, 外如瘡癤疥癩”²⁰⁷⁾이라 하였다.

『玉楸藥解』에 “破於泄滿, 止痛消脹”²⁰⁸⁾이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膀胱腎間冷氣功衝背脊, 治脚氣, 疝氣, 腫脹喘息, 止小便數及白濁, 治膀胱冷氣' 등은 腎과 관련이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烏藥을 理氣藥으로 分類시키고 溫腎散寒의 效能²⁰⁹⁾이 있어서

194)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20.

195)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27.

196) 汪昂.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94.

197) 申信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73. p.67.

198) 李樾. 醫學入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194.

199)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22.

200)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98.

201)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81.

202) 黃元御. 玉楸藥解. 黃元御醫書11種 下卷. 北京. 人民衛

生出版社. 1990. p.471.

203) 李樾. 醫學入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194.

204)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22.

205)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34.

206)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30.

207) 汪昂.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138.

208) 黃元御 撰. 玉楸藥解. 黃元御醫書11種 下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90.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烏藥을 溫腎하는 藥으로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다.

10) 石南藤

『本草綱目』에 “治上氣咳嗽”²¹⁰⁾라 하였다.

『醫學入門』에 “除痺排風和氣血, 滋補衰老能興陽, 強腰膝兮變白髮”²¹¹⁾이라 하였다.

『東醫寶鑑』에 “主風血, 補衰老, 起陽, 強腰脚, 除痺, 變白, 排風邪.”²¹²⁾라 하였다.

『中藥大辭典』에 “廣州空軍『常用中草藥手冊』: 解表發汗, 驅風濕, 除痺痛, 消腫止痛. 治風濕痺痛, 半身不遂, 跌打腫痛”²¹³⁾이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滋補衰老能興陽, 強腰膝兮變白髮, 補衰老, 起陽, 強腰脚, 除痺, 變白’ 등은 腎과 관련이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祛風濕藥으로 分類하였고 強腰膝, 壯陽하는 效能²¹⁴⁾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石南藤을 溫腎하는 藥物에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다.

4. 涼藥

1) 知母(兼補藥)

『神農本草經』에 “主消渴熱中, 除邪氣肢體浮腫, 下水, 補不足, 益氣”²¹⁵⁾라 하였다.

『名醫別錄』에 “療傷寒久瘧煩熱, 脇下邪氣, 膈中惡及風汗內疽”²¹⁶⁾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通小腸, 消痰止咳, 潤心肺, 補虛乏, 安心, 止驚悸”²¹⁷⁾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安胎, 止子煩, 避射工溪毒”, “知

母之辛苦寒涼, 下則潤腎燥而滋陰, 上則清肺金而瀉火, 乃二經氣分藥也”²¹⁸⁾라 하였다.

『東醫寶鑑』에 “主骨蒸熱勞, 腎氣虛損, 止消渴, 療久瘧, 黃疸, 通小腸, 消痰止咳, 潤心肺, 治產後褥勞”²¹⁹⁾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主消渴熱中, 除邪氣肢體浮腫, 下水, 知母之辛苦寒涼, 下則潤腎燥而滋陰, 主骨蒸熱勞, 腎氣虛損, 止消渴’ 등은 腎과 관련하여 涼하고 補하는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清熱瀉火, 滋陰潤燥하는 效能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知母를 涼腎하는 동시에 補腎하는 藥物에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다.

2) 黃柏

『神農本草經』에 “主五臟胃中結熱, 黃疸, 腸痔; 止泄痢, 女子漏下赤白, 陰傷蝕瘡”²²⁰⁾이라 하였다.

『名醫別錄』에 “療驚氣在皮間, 肌膚熱赤起, 目熱赤通, 口瘡”²²¹⁾이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安心, 除勞, 治骨蒸, 洗肝, 明目, 多淚, 口乾, 心熱, 殺疳蟲, 治蛔心痛, 疥癬, 蜜炙治鼻洪, 腸風瀉血, 後分急熱腫痛”²²²⁾이라 하였다.

『用藥珍珠囊』에 “瀉膀胱經火, 補本經及腎不足, 安蛔蟲, 補下焦虛, 堅腎”²²³⁾이라 하였다.

『醫學啓源』에 “『主治秘訣』云, 瀉膀胱龍火, 利小便熱結, 下焦濕腫, 痢先見血, 去臍下痛, 補腎氣不足, 壯骨髓”²²⁴⁾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敷小兒頭瘡”²²⁵⁾이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止女子漏下赤白, 陰傷蝕瘡, 治骨蒸, 瀉膀胱經火, 補本經及腎不足, 補下焦虛, 堅腎, 利

209)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21.

210)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76.

211) 李梴. 醫學入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140.

212) 許浚. 東醫寶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923.

213)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4.

214) 中國中醫研究院. 廣州中醫學院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85.

215) 吳普. 神農本草經(卷二). 서울. 翰林社. 1976. p.11.

216)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22.

217)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61.

218)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13.

219) 許浚. 東醫寶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897.

220) 吳普. 神農本草經(卷一). 서울. 翰林社. 1976. p.40.

221)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40.

222)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19.

223) 雷李東垣. 用藥珍珠囊.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51.

224) 張元素. 醫學啓源. 中華醫書集成 第22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46.

225)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42.

小便熱結, 下焦濕腫, 痢先見血, 去臍下痛, 補腎氣不足, 壯骨髓' 등은 腎과 관련이 있으며, 目熱赤通, 洗肝, 明目, 多淚 등은 肝과 관련이 있는데 '肝腎同源'에 의거하여 腎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現代에서는 清熱藥으로 分類하는데 退虛熱의 效能²²⁶⁾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黃柏을 涼腎하는 藥物에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다.

3) 牡丹

『神農本草經』에 “主寒熱, 中風痙瘓·瘳·驚癇邪氣, 除癥瘕瘀血留舍腸胃, 安五臟, 療癰瘡”²²⁷⁾이라 하였다.

『名醫別錄』에 “除時氣頭痛, 客熱五勞, 勞氣頭腰痛, 風噤, 癩癩”²²⁸⁾이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除邪氣, 悅色, 通關腠血脈, 排膿, 通月經, 消撲損瘀血, 續筋骨, 除風痺, 落胎下胞, 產後一切冷熱血氣”²²⁹⁾이라 하였다.

『醫學入門』에 “寒瀉火伏, 養眞血氣, 破結蓄”²³⁰⁾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和血, 生血, 涼血. 治血中伏火, 除煩熱”²³¹⁾이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勞氣頭腰痛, 續筋骨, 寒瀉火伏, 治血中伏火, 除煩熱' 등은 腎과 관련이 있고, 中風痙瘓·瘳·驚癇邪氣, 通月經, 消撲損瘀血, 養眞血氣, 和血, 生血' 등은 肝과 관련이 있는데 水生木과 '肝腎同源'에 의거하여 腎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牡丹皮를 清熱藥으로 分類시키고 清熱涼血, 活血散瘀하는 效能²³²⁾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牡丹을 涼腎하는 藥物에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다.

4) 地骨皮

『神農本草經』에 “主五內邪氣, 熱中消渴, 周痺”²³³⁾라 하였다.

『名醫別錄』에 “主風濕, 下胸脇氣, 客熱頭痛, 補內傷大勞嘔吸, 堅筋, 強陰, 利大小腸, 耐寒暑”²³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去下焦肝腎虛熱”²³⁵⁾이라 하였다.

『東醫寶鑑』에 “治有汗骨蒸, 善解肌熱”²³⁶⁾이라 하였다.

『本草備要』에 “降肺中伏火, 瀉肝、腎虛熱, 能涼血而補正氣”²³⁷⁾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熱中消渴, 補內傷大勞嘔吸, 堅筋, 強陰, 去下焦肝腎虛熱, 治有汗骨蒸, 瀉肝、腎虛熱' 등이 腎과 관련이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清熱藥으로 分類시키고 涼血退蒸의 效能²³⁸⁾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地骨皮를 涼腎하는 藥物에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다.

5) 玄蔘(兼補藥)

『神農本草經』에 “主腹中寒熱積聚, 女子產乳餘疾, 補腎氣, 令人明目”²³⁹⁾이라 하였다.

『名醫別錄』에 “主暴中風, 傷寒身熱, 支滿狂邪, 忽忽不知人, 溫瘧泗泗, 血瘦下寒熱, 除胸中氣, 下水, 止煩渴, 散頸下核, 癰腫, 心腹痛, 堅癥, 安五臟”²⁴⁰⁾이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治頭風, 熱毒, 游風, 補虛, 勞損, 心驚, 煩躁, 劣乏; 骨蒸, 傳尸, 邪氣, 止健忘, 消腫毒”²⁴¹⁾이라 하였다.

『醫學啓源』에 “治心中懊懣, 煩而不得眠, 心神顛

226)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42.

227) 吳普. 神農本草經(卷二). 서울. 翰林社. 1976. p.19.

228)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243.

229)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73.

230) 李樞. 醫學入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172.

231)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70.

232)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47.

233) 吳普. 神農本草經(卷二). 서울. 翰林社. 1976. p.38.

234)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44.

235)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97.

236) 許浚. 東醫寶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912.

237) 汪昂.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123.

238)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68.

239) 吳普. 神農本草經(卷二). 서울. 翰林社. 1976. p.10.

240)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27.

241)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64.

倒欲絕，血滯小便不利”²⁴²⁾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滋陰降火，解斑毒，利咽喉，通小便血滯”²⁴³⁾이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主腹中寒熱積聚，女子產乳餘疾，補腎氣，令人明目’은 張志聰이 本草三家合註에서 腎과 관련이 있음²⁴⁴⁾을 보여주었고, ‘骨蒸，滋陰降火，通小便血滯’등은 腎과 관련이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淸熱藥으로 分類시키고 淸熱養陰의 效能²⁴⁵⁾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玄蓼을 涼腎하고 補腎하는 藥物에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다.

3.3 他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

1. 補藥

1) 龍骨

『神農本草經』에 “主咳逆，泄痢膿血，女子漏下，癥瘕堅結，小兒熱氣驚癇.”²⁴⁶⁾이라 하였다.

『名醫別錄』에 “療心腹煩滿，四肢痿枯，汗出，夜臥自驚，悲怒，伏氣在下心不得喘息，腸癰內疽，陰蝕，止汗，縮小便，尿血，養精神，定魂魄，安五臟”²⁴⁷⁾이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健脾，澁腸胃，止瀉痢，渴疾，懷孕漏胎，腸風下血，崩中帶下，鼻洪吐血，止汗.”²⁴⁸⁾이라 하였다.

『用藥珍珠囊』에 “固大腸脫.”²⁴⁹⁾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益腎鎮驚，止陰瘡，收濕氣脫肛，生肌斂瘡.”²⁵⁰⁾이라 하였다

張志聰이 上記의 내용 중에서 ‘咳逆，泄痢膿血，漏下，小兒熱氣驚癇’등은 腎臟과 相關성이 있음을 설명²⁵¹⁾하였고, ‘夜臥自驚，縮小便，尿血，安五臟，懷孕漏胎，益腎，止陰瘡’등은 補腎과 관련이 있다.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安神藥으로 分類하고 平肝潛陽，鎮靜安神，收斂固澀의 效能²⁵²⁾을 지닌다. 平肝潛陽시키면 저절로 安神이 되는 것이니 木生火의 相生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肝腎同源’에 입각하여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龍骨을 補腎에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으며 肝虛入腎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2) 五味子

『神農本草經』에 “主益氣，咳逆上氣，勞傷羸瘦，補不足，強陰，益男子精”²⁵³⁾이라고 하였다.

『名醫別錄』에 “養五臟，除熱，生陰中肌”²⁵⁴⁾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明目，暖水臟，治風，下氣，消食，霍亂轉筋，痲癩，奔豚冷氣，消水腫，反胃，心腹氣脹，止渴，除煩熱，解酒毒，壯筋骨”²⁵⁵⁾이라 하였다.

『本草蒙筌』에 “風寒咳嗽南五味爲奇，虛損勞傷，北五味最妙”²⁵⁶⁾라 하였다.

『醫學入門』에 “主肺寒咳逆，上氣喘嗽，通血生脈，補氣，兼和中氣，霍亂轉筋，翻胃，解酒毒，消食積，痲癩，奔豚冷氣，水濕氣滯，腹腫脹大.”²⁵⁷⁾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에 ‘強陰，益男子精，明目，暖水臟，

242) 張元素. 醫學啓源. 中華醫書集成 第22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48.

243)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26.

244) 張隱庵·葉天士·陳修園. 本草三家合註(卷四). 서울. 醫道韓國社. 1976. p.1. “主治腹中寒熱積聚者,啓腎精之氣上交於肺,則水天一氣,上下環轉,而腹中之寒熱積聚自算矣,女子產乳餘疾者,生產則腎臟內虛,乳子則中焦不足,雖有餘疾,必補腎和中,玄蓼滋腎一之精,助中焦之汁,故可治也.”

245)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46.

246) 吳普. 神農本草經(卷一). 서울. 翰林社. 1976. p.44.

247)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70.

248)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51.

249) 雷李東垣. 用藥珍珠囊.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22.

250)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00.

251) 張隱庵·葉天士·陳修園. 本草三家合註(卷三). 서울. 醫道韓國社. 1976. p.9 "女子漏下者,水氣不升也,龍骨啓泉下水精,從地土而上騰於天,則陰陽交會,上下相和,故咳逆洩痢漏下,皆可治也, …… ,水氣上升,則小兒熱氣驚癇自散."

252)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90.

253) 吳普. 神農本草經(卷一). 서울. 翰林社. 1976. p.30.

254)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17.

255)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55.

256) 陳嘉謨. 本草蒙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p.44.

257) 李梴. 醫學入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172.

除煩熱, 解酒毒, 壯筋骨'등이 補肝腎과 관련이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收澁藥에 속하고 斂肺滋腎, 生津斂汗, 澁精止瀉, 寧心安神 등의 效能²⁵⁸⁾이 있다. 金生水는 金이 水만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金水가 相生하는 것을 말한다. 肺와 腎이 相生하니 斂肺滋腎, 生津斂汗의 效능을 지닌다. 五味子が 다스리는 泄瀉는 火(腎陽)不生土(脾陽)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五味子를 補腎하는 藥으로 配屬시킴을 알 수 있으며 肺虛入腎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3) 蓮肉

『神農本草經』에 “主補中, 養神, 益氣力.”²⁵⁹⁾이라 하였다.

『本草拾遺』에 “令髮黑, 不老.”²⁶⁰⁾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益氣, 止渴, 助心, 止痢. 治腰痛, 治泄精, 安心.”²⁶¹⁾이라 하였다.

『本草備要』에 “清心除煩, 開胃進食, 專治噤口痢, 淋濁諸證.”²⁶²⁾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交心腎, 厚腸胃, 固精氣, 強筋骨, 補虛損, 利耳目, 除寒濕, 止脾泄久痢, 赤白濁, 女人帶下崩中諸血病.”²⁶³⁾이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令髮黑, 不老, 治腰痛, 治泄精, 淋濁, 交心腎, 固精氣, 強筋骨, 補虛損, 利耳目, 女人帶下崩中諸血病’ 등의 效能과 主治가 腎과 관련이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收澁藥에 分類시키고 補脾止瀉, 益腎固精, 養心安神하는 效能²⁶⁴⁾을 지닌다. 消火器와 관련한 症狀은 火不生土로 말미암으며 心과 관련한 症狀은 瀉南(火)補北(水)法을 써서 다스린

다. 이로써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蓮肉을 補腎하는 藥物에 配屬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脾胃를 튼튼하게 하니 脾氣入腎한 症狀을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4) 牡蠣

『神農本草經』에 “傷寒寒熱, 溫瘧, 驚恚怒氣, 除拘緩鼠瘻, 女子帶下赤白. 久服強骨節.”²⁶⁵⁾이라 하였다.

『名醫別錄』에 “除留熱在關節營衛, 虛熱去來不定, 煩滿; 止汗, 心痛氣結, 止渴, 除老血, 澁大小腸, 大小便, 療泄精, 喉痺, 咳嗽, 心脇下痞熱.”²⁶⁶⁾이라 하였다.

『海葯本草』에 “主男子遺精, 虛勞乏損, 補腎正氣, 止盜汗, 去煩熱, 治傷寒熱痰, 能補陽安神, 治孩子驚癇”²⁶⁷⁾이라 하였다.

『珍珠囊』에 “軟痞積. 又治帶下, 溫瘧, 瘡腫, 爲軟堅收澁之劑”²⁶⁸⁾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化痰軟堅, 清熱除濕, 止心痞氣痛, 痢下, 赤白濁, 消疝瘕積塊, 癭疾結核”²⁶⁹⁾이라 하였다.

『本草備要』에 “鹹以軟堅, 化痰, 消瘰癧結核, 老血瘕疝; 澁以收脫, 治遺精崩帶, 止嗽斂汗, 固大, 小腸; 微寒以清熱補水, 治虛勞煩熱, 溫瘧赤痢, 利濕止渴, 爲肝腎血分之藥”²⁷⁰⁾이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除女子帶下赤白, 久服強骨節, 療泄精, 主男子遺精, 虛勞乏損, 補腎正氣, 止盜汗, 去煩熱, 能補陽安神, 治遺精崩帶, 清熱補水, 爲肝腎血分之藥’ 등의 效能과 主治가 腎과 관련이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牡蠣를 平肝息風藥으로 分類시키고 平肝潛陽, 軟堅散結, 收斂固澁의 效能²⁷¹⁾을 지닌다.

258)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46.

259) 吳普. 神農本草經(卷一). 서울. 翰林社. 1976. p.50.

260)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54.

261)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94.

262) 汪昂.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169.

263)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06.

264)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54.

265) 吳普. 神農本草經(卷一). 서울. 翰林社. 1976. p.48.

266)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84.

267) 五大·李珣 共著. 海藥本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p.76.

268)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125.

269)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54.

270) 汪昂.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239.

平肝潛陽은 陰虛陽亢을 다스리는 것으로 水不生木의 관계에 따라서 肝陰虛의 원인은 腎陰虛에 있을 수 있으니, 肝腎同源에 입각하여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牡蠣을 補腎하는 藥物로 配屬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肝氣入腎한 症狀을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5) 小草

『日華子本草』에 “長肌肉, 助筋骨, 婦人血噤失音, 小兒客忤.”²⁷²⁾라 하였다.

『名醫別錄』에 “主益精, 補陰氣, 止虛損, 夢泄”²⁷³⁾이라 하였다.

『得配本草』에 “去血中鬱熱, 散少陰風熱; 痘熱不起, 用以發之”²⁷⁴⁾라 하였다.

『醫學入門』에 “益精補陰氣, 止虛損夢泄, 治心孔昏塞”²⁷⁵⁾이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 ‘助筋骨, 主益精, 補陰氣, 止虛損, 夢泄’ 등의 效能과 主治가 腎과 관련하여 補하는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小草(遠志)²⁷⁶⁾를 安神藥으로 분류시키고 寧心安腎, 祛痰開竅, 消癰腫의 效能을 지니는데, 이는 心腎不交하거나 痰이 心竅를 막아 생기는 증후들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로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小草를 補腎하는 藥物로 配屬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藥性이 따뜻하여 心冷入腎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6) 當歸

『神農本草經』에 “主咳逆上氣, 溫瘧寒熱洗在皮膚中, 婦人漏下, 絕子, 諸惡瘡瘍金瘡, 煮飲之”²⁷⁷⁾라고

하였다.

『名醫別錄』에 “溫中止痛, 除咯血內塞, 中風瘞, 汗不出, 濕痺, 中惡客氣, 虛冷, 補五臟, 生肌肉”²⁷⁸⁾이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治一切風, 一切血, 補一切勞, 去惡血, 養新血, 及主癥癖”²⁷⁹⁾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治頭痛, 心腹諸痛, 潤腸胃筋骨皮膚, 治癰疽, 排膿止痛, 和血補血”²⁸⁰⁾이라 하였다.

『本草蒙筌』에 “逐跌打血凝, 並熱痢括疼滯住腸胃內”²⁸¹⁾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에서 腎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요즘 本草書들도 效能, 主治, 歸經에 있어서 當歸를 腎과 관련이 있다고 기록한 경우는 드물다. 다만 張志聰이 “(當歸가) 婦人の 漏下와 絶子を 다스리는 것은 腎臟의 精氣를 도와서 아래에서 心包로 上交하면 婦人の 漏下無時와 絶子是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여 『神農本草經』의 漏下와 絶子を 腎臟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몇몇 醫家들은 當歸가 腎에 작용한다는 것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汪昂은 『本草備要』에서 ‘咳逆上氣(血和則氣降),’ ‘溫瘧(厥陰肝邪),’ ‘風瘞無汗(以血脫無以養筋),’ ‘婦人諸不足, 一切血證, 陰虛而陽無所附者,’ ‘潤腸胃澤皮膚(血旺則肉長),’ ‘排膿止痛(血和則痛止)’ 등으로 기술하여서 上記의 증상들이 대부분 肝血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血에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當歸가 腎에 작용하게 되는 論理는 아래의 醫家들의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神農本草經百種錄』에 “通閉順氣하고 和陰清火하고 降逆生津하고 去風利竅하는 一切 滋潤通和의 藥물은 모두 陰氣를 流通시켜서 亢陽致害하지 않게 하니 이것이 곧 生血하는 까닭이다”²⁸²⁾고 하였으며,

271)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95.
272)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34.
273)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24.
274) 嚴浩·施雯·洪煒 共著. 得配本草. 中華醫書集成 第5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24.
275) 李梴. 醫學入門.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5. p.174.
276)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92. 遠志로 대신함(李芳遠, 本草精要, 一中社, 서울, 2002, p.513의 내용: “小草는 性味, 效能이 遠志와 거의 같다. 古方에서는 이를 썼으나 現在는 모두 遠志를 쓴다.”

277) 吳普. 神農本草經(卷二). 서울. 翰林社. 1976. p.8.
278)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12.
279)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57.
280)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62.
281) 陳嘉謨. 本草蒙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36.
282) 神農本草經百種錄. 欽定四庫全書 子部 五醫家類. 53.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74. “通閉順氣和陰清火降逆生津去風利竅一切滋潤通和之品皆能令陰氣流通不使亢陽致害

『申氏本草學』에 “무릇 血虛·血枯와 陰分虧損한 證은 모두 마땅히 用하되 오직 虛勞多汗과 大便滑瀉者는 모두 禁用한다. 當歸의 性이 비록 溫하나 血虛有熱者도 또한 用하니 그것은 生血이 곧 滋陰하고 退熱하기 때문이다”²⁸³⁾라 하였고, 『成方便讀』에 “補氣할 경우에는 脾肺로부터 求해야 하고 補血하는 것은 肝腎으로부터 求해야 한다”²⁸⁴⁾라 하였다.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當歸를 補腎에 配屬시킨 것은 血은 陰에 屬하고 肝과 腎은 그 근원이 같으니 生血하는 것이 곧 滋陰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當歸가 他臟에 비해 本臟과 관련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當歸를 本臟에 配屬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五行에 있어서도 相生關係에 따라 子盜母氣로서 서로 影響을 미치게 되니, 肝虛入腎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7) 合歡

『神農本草經』에 “主安五臟, 利心志”²⁸⁵⁾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殺蟲, 煎膏, 消癰腫, 并續筋骨”²⁸⁶⁾이라고 하였다.

『本草綱目』에 “和血, 消腫, 止痛”²⁸⁷⁾이라 하였다.

『中藥大辭典』에 “解鬱, 和血, 寧心, 消癰腫. 治心神不安, 憂鬱失眠, 肺癰, 癰腫, 瘰癧, 筋骨折傷”이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을 보면 合歡은 肝, 心, 腎, 肺 등과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 腎臟과의 관련성은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效能이 腎臟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은 적지만 內面에서 腎臟에 作用하는 作用력이 크다는 것을 醫家들은 다음

即所以生血也”

283)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73. p.83.

284) 主編 段富津. 方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5. p.124. 『成方便讀』의 내용을 인용: “補氣者, 當求之脾肺; 補血者, 當求之肝腎”

285) 吳普. 神農本草經(卷二). 서울. 翰林社. 1976. p.26.

286)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30.

287)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58.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氣味が 甘平하여 이를 복용하면 오직 脾에 들어가 補陰하고 (朱震亨이 말하기를 合歡은 土에 屬하고 補陰하는 기능이 있으니 長肌肉하고 續筋骨하는 것을 대개 알 수 있다.) 心으로 들어가 氣를 緩和시켜 五臟을 便安하게 하니 神氣가 저절로 暢達한다.”²⁸⁸⁾라 하였고, “合歡皮는 水土의 二性을 갖추고 氣가 薄하고 陽中の 陰에 속한다. 強壯·興奮·利尿·驅蟲作用이 있고, 아울러 能히 鎮痛하여 補陰하며, 起體를 기르고 筋骨을 잇는 良品이다”²⁸⁹⁾라 하였으며, 『本草衍義補遺』에 “合歡은 補陰에 있어서 빠른 효능을 지니며, 長肌肉하고 續筋骨하는 효능이 나타나는데 外科의 醫家들이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²⁹⁰⁾라 하여 合歡이 腎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安神解鬱, 活血消腫의 효능이 있는 合歡을 安神藥으로 分類하니 肝과 心을 다스리는 藥物로 볼 수 있다. 心火가 下部로 내려오지 못하여 홀로 亢盛하게 되거나(心病及腎) 腎水가 上部로 가서 凝集하지 못한다면(腎病及心), 心腎사이의 생리기능이 調和를 잃게 되는 心腎不交(水火未濟)의 상태가 되는데, 失眠을 主症으로 하는 心悸, 怔忡, 心煩, 腰膝痠軟, 夢遺, 夢交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 肝의 疏泄작용과 藏血기능은 腎의 滋養에 의존하는데 腎을 제대로 滋養하지 못하면 肝의 疏泄작용과 藏血기능에 장애가 생겨 憂鬱, 失眠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 또한 肺와 관련해서는 過度한 勞傷으로 腎陰이 虛하여 陰液이 上承하지 못함으로써 虛火가 肺를 灼傷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肺腎陰虛證이 함께 나타난다. 五行으로 보면 金生水의 相克관계로서 肺와 腎이 相互 影響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合歡과 관련한 症狀들은 心與腎, 肝與腎, 肺與腎 등의 관계에서 보듯이 他臟腑가 腎臟과의 機能失調로 인해 나타나므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合歡을

288) 黃宮繡. 本草求真. 서울. 醫聖堂. 1999. p.17.

“味甘氣平, 服之雖能入脾補陰, 朱震亨曰: 合歡屬土, 補陰之功, 長肌肉, 屬筋骨, 概可見矣. 入心緩氣, 而令五臟安和, 神氣自暢”

289)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73. p.544.

290)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937. 『本草衍義補遺』: “合歡, 補陰有捷功, 長肌肉, 續筋骨, 概可見矣, 而外科未曾錄用何也?”

補腎하는 藥物에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으며 安神하면서도 活血의 작용이 강하여 心氣入腎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3. 溫藥

1) 柏子仁

『神農本草經』에 “主驚悸, 安五臟, 益氣, 除濕痺”²⁹¹⁾이라 하였다.

『名醫別錄』에 “療恍惚, 虛損呼吸, 歷節, 腰中重痛, 益血止汗”²⁹²⁾이라 하였다.

『日華子本草』에 “治風, 潤皮膚”²⁹³⁾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養心氣, 潤腎燥, 益智寧神; 燒溼治疥癬”²⁹⁴⁾이라 하였다.

『申氏本草學』에 “益智, 寧神, 補心脾, 滋肝腎, 潤顏色, 聰明耳目, 除風濕痺痛, 治驚悸, 恍惚, 興陽道”²⁹⁵⁾라 하였다.

上記의 내용 중‘驚悸, 虛損呼吸, 腰中重痛, 潤腎燥, 益智, 滋肝腎, 聰明耳目, 興陽道’등은 腎과 관련이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柏子仁을 安神藥으로 분류시키고 養心安神, 潤腸通便하는 效能이²⁹⁶⁾ 있다고 하였으니 水虛火盛하여 心腎不交한 증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本草備要』에서는 “潤肝腎. 能透心腎. (補脾藥多燥, 此潤藥而香能舒脾, 燥脾藥中兼用最良.”²⁹⁷⁾라 하였고, 『藥品化義』에 “氣味が 모두 짙으니 濁中에서 腎에 돌아가고 熟地·龜板·枸杞·牛膝과 같이 骨髓를 封填하여 主治는 腎陰虧損, 腰背重痛, 足膝軟弱, 陰虛盜汗인데 이는 모두 腎燥를 滋養하는 힘에 의한 것이다”²⁹⁸⁾라 하여 腎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醫學入門』에서는 柏子仁을 溫藥으로 분류하였으나 모든 本草書들은 氣味를 대부분 甘平으로 기술하고 있다. 李梴이 平藥을 溫藥에 配屬시킨 것은 李梴이 本草의 分類를 네 가지(補瀉溫涼)로만 나누었는데 平藥도 이딘가에는 配屬을 시켜야 했으며, 李梴의 主觀의인 생각이 가미되어 溫藥으로 分類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涼藥을 溫藥으로 分類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平藥을 溫藥으로 分類한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柏子仁을 溫腎하는 藥物로 配屬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心氣入腎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2. 涼藥

1) 竹瀝

『名醫別錄』에 “療暴中風風痺, 胸中大熱, 止煩悶, 消渴, 勞復”²⁹⁹⁾이라 하였다.

『本草衍義補遺』에 “中風失音不語, 養血清痰, 風痰虛痰在胸膈, 使人顛狂, 痰在經絡四肢及皮裏膜外, 非此不達不行”³⁰⁰⁾이라 하였다.

『本草拾遺』에 “久渴心煩”³⁰¹⁾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治子冒風瘧, 解射罔毒”³⁰²⁾이라 하였다.

『本草備要』에 “消風降火, 潤燥行痰, 養血益陰, 利竅明目. 治中風口噤, 痰迷大熱, 風癱癲狂, 煩悶消渴, 血虛自汗”³⁰³⁾이라 하였다.

上記의 本草書의 내용은 中風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보인다. 이것이 腎臟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醫家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胸中은 太陰脾經이 지나는 길이니 脾陰이 虛하면 胸中이 大熱하게 되니 甘寒으로 清熱하기 때문이다. 腎은 水이고 心은 火인데 水가 火를 制압하지 못하면 心中이 煩悶하고

291) 吳普. 神農本草經(卷二). 서울. 翰林社. 1976. p.37.
292)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38.
293)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15.
294)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08.
295)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73. p.117.
296)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92.
297) 汪昂.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120.
298)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515.

299)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26.
300)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77.
301)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899.
302)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21.
303) 汪昂.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155.

消渴이 생기니, 이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甘寒으로 壯水하여 淸火할 수 있다.”³⁰⁴라 하였고, “대개 竹瀝이 竹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血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같다. 지극히 補陰을 다 할 수 있으니 淸火에 뛰어나고(補陰 또한 火가 淸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다) 性이 滑하고 매끄러워 구멍으로 가서 痰을 몰아내므로 中風의 중요한 藥이 된다. 中風은 陰虛火旺으로 말미암아 津液을 바짝 줄여서 痰을 만드는데 이 痰이 氣道를 막아 升降作用을 하지 못할 때에 이것을 服用하면 經絡이 매끄럽게 疏通되고 痰熱로 하여금 물러가게 하고 氣道로 하여금 通하게 하니 外證이 낮은 것이다.”³⁰⁵고 하였으며, “『黃帝內經』에 이르기를 陰虛發熱에는 大寒으로 補할 수 있다. 바로 病과 맞아 떨어진다. 薯蕷는 寒으로 補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간혹 이것을 사용하지만, 오로지 竹瀝만은 大寒으로 인해 사용하기를 싫어한다. 竹瀝은 味甘하고 性緩하여 陰虛로 大熱한 것을 치료할 수 있는데, 大寒이란 效能을 말한 것이지 氣를 말한 것이 아니다.”³⁰⁶고 하여 竹瀝이 腎臟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上記의 本草書의 내용 중에서 中風과 관련한 증상은 熱邪가 心竅를 막아서 생긴 것이다.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化痰藥으로 分類하였고 淸熱豁痰의 效能이 있는데, 淸熱은 補陰하면 다스려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는 竹瀝을 補腎藥에 配屬시켰으며 藥性이 서늘하여 心熱入腎한 증상을 다스리는 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304) 張隱庵·葉天士·陳修園共著. 本草三家合註(卷五). 서울. 醫道韓國社. 1976. p.9. “葉天士曰:……胸中者, 太陰脾經行之地, 脾陰虛則胸中大熱矣, 甘寒淸熱, 所以主之, 腎者水也, 心者火也, 水不制火, 則心中煩悶而消渴矣, 其主之者, 甘寒可以壯水而淸火也.”

305) 黃宮繡. 本草求真. 서울. 醫聖堂. 1999. pp.156-157. “蓋瀝之出于竹, 由血之出于人也. 極能補陰, 長于淸火, 補陰亦由火淸而致. 性滑流利, 走竅逐痰, 故爲中風要藥. 以中風莫不由于陰虛火旺, 煎熬津液成痰, 壅塞氣道, 不得升降, 服此流利經絡, 使痰熱去, 氣道通, 而外證愈矣.”

306)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899.

“『內經』曰 陰虛發熱, 大寒而能補, 正與病對, 薯蕷寒而能補, 世或用之, 惟竹瀝因大寒置疑, 竹瀝味甘性緩, 能除陰虛之有大熱者, 大寒者言其功也, 非以氣言”

腎氣證	肝氣入腎 : 牡蠣 心氣入腎 : 合歡、柏子仁 脾氣入腎 : 蓮肉
腎虛證	肝虛入腎 : 龍骨、當歸 肺虛入腎 : 五味子
腎熱證	心熱入腎 : 竹瀝
腎冷證	心冷入腎 : 小草

표 5. 『醫學入門·臟腑條分』中 腎臟編 病理機轉과 藥物

IV. 총괄 및 고찰

腎은 先天之本으로 生命의 根源이 되는데, 腎의 陰液과 陽氣가 不足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臟腑에 가지 미치게 되고, 반대로 다른 各 臟腑의 異常은 점차적으로 腎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五行學說이다. 五行學說은 人體의 內臟을 각기 五行에 귀속시키고 五行의 특성에 의해 五臟의 生理기능을 설명하는데, 生理的으로 臟腑間의 相互連繫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病理상태에서의 臟腑間의 相互影響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本臟과 他臟間에도 서로 影響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고서 『醫學入門·臟腑條分』中 腎臟에 작용하는 藥物을 分析하였던 바, 本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은 물론 他臟에 주로 작용하여 腎臟에 影響을 미치는 藥物까지도 『醫學入門·臟腑條分』中 腎臟에 配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本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로는 熟地·枸杞·鹿茸·鍾乳粉·龜板·虎骨³⁰⁷등이 있는데 腰痛、腰膝痠軟、頭暈目眩、耳鳴耳聾等 腎臟과 관련 있는 病症을 다스리는 效能이 있음을 여러 本草書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 중에서 補藥은 熟地·枸杞·鹿茸·鍾乳粉·龜板·虎骨·鎖陽·山茱萸·杜仲·山藥·知母·芡實·覆盆子·桑螵蛸·牛膝·玄蔘·石楠·五加皮·楮實 등 19종으로 대부

307) 熟地·枸杞·鹿茸·鍾乳粉·龜板·虎骨·鎖陽·山茱萸·杜仲·山藥·知母·芡實·覆盆子·桑螵蛸·牡蠣·牛膝·石楠·五加皮·楮實·苦茗·猪苓·琥珀·澤瀉·茯苓·沈香·菟絲·附子·乾薑·肉桂·巴戟·葫蘆巴·補骨脂·烏藥·石南藤·黃柏·牡丹皮·地骨皮.

분 補腎과 固精縮尿하는 效能이 있는 藥物들이며, 瀉藥은 苦名·猪苓·琥珀·澤瀉·茯苓 등 5종으로 利尿, 利水滲濕하는 藥物로 구성되었으며, 溫藥은 沈香·菟絲·附子·乾薑·肉桂·巴戟·葫蘆巴·補骨脂·烏藥·石南藤 등 10종으로 補陽, 溫腎藥과 溫裏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涼藥은 知母·黃柏·牡丹·地骨皮·玄參 등 5종으로 清熱의 效能이 있는 藥物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각기 補腎, 瀉腎, 溫腎, 涼腎에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기할 만 한 점은 瀉藥에 관한 부분이다. 『筆花醫鏡』에 “腎無實症”³⁰⁸⁾이라 하였는데 實症이 없으니 瀉法도 없다는 뜻이다. 『醫學入門』에 “五臟 俱有補瀉 惟腎 有補無瀉”³⁰⁹⁾라 한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腎에 瀉法이 없으니 瀉藥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醫學入門·臟腑條分』에 瀉腎하는 藥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瀉는 다른 臟腑에서처럼 폭넓은 瀉의 의미가 아닌 利尿, 利水滲濕의 意味만을 내포한다. 그리고 腎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中에 중복되는 藥物에는 知母와 玄參이 있는데 知母는 虛熱을 다스리는 藥物로서 清熱滋陰하는 效能이 있으니 補腎과 涼腎을 동시에 兼하였으며, 玄參은 清熱養陰하는 效能이 있으니 補腎과 涼腎을 동시에 兼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他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이 어떻게 腎臟과 상호 作用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龍骨은 平肝潛陽, 鎮靜安神, 收斂固澁의 效能을 지니는데 平肝潛陽시키면 저질로 安神이 되는 것이니 木生火의 相生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肝腎同源에 입각하여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龍骨을 補腎에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으며 肝虛入腎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五味子是 斂肺滋腎, 生津斂汗, 澁精止瀉, 寧心安神 등의 效能이 있다. 金生水는 金이 水만을 生하는 것이 아니라 金水가 相生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肺와 腎이 相生하니 斂肺滋腎, 生津斂汗의 效能을 지닌다. 五味자가 다스리는 泄瀉는 火(腎陽)不生土(脾陽)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로써 『醫學入門·

臟腑條分』에서 五味子を 補腎하는 藥으로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으며 肺虛入腎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蓮肉은 補脾止瀉, 益腎固精, 養心安神하는 效能을 지닌다. 消火器와 관련된 症狀은 火不生土로 말미암으며 心과 관련된 症狀은 瀉南(火)補北(水)法을 써서 다스린다. 이로써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蓮肉을 補腎하는 藥物에 配屬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脾胃를 튼튼하게 하니 脾氣入腎한 症狀을 다스리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牡蠣는 平肝潛陽, 收斂固澁의 效能을 지닌다. 平肝潛陽은 陰虛陽亢을 다스리는 것으로 水不生木의 관계에 따라서 肝陰虛의 原因은 腎陰虛에 있을 수 있으니, 肝腎同源에 입각하여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牡蠣를 補腎하는 藥物로 配屬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肝氣入腎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小草는 寧心安腎, 祛痰開竅, 消腫腫의 效能을 지니는데, 이는 心腎不交하거나 痰이 心竅를 막아 생기는 證후들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로써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小草를 補腎하는 藥物로 配屬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藥性이 따뜻하여 心冷入腎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當歸를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補腎에 配屬시킨 것은 血은 陰에 屬하고 肝과 腎은 그 근원이 같으니 生血하는 것이 곧 滋陰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當歸가 他臟에 비해 本臟과 관련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當歸를 本臟에 配屬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五行에 있어서도 相生關係에 따라 子盜母氣로서 서로 影響을 미치게 되니, 肝虛入腎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合歡을 本草書의 效能과 主治로 볼 때에, 肝, 心, 腎, 肺 등과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 腎臟과의 相關성은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效能이 腎臟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은 적지만 內面에서 腎臟에 作用하는 作用力이 크다는 것을 醫家들은 腎陰을 補하는데 빠른 效能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安神解鬱, 活血消腫의 效能이 있는 合歡을 安神藥으로 分類하

308) 江涵暉. 筆花醫鏡.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38.

309) 編註醫學入門. 李梴.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202.

니 心臟을 다스리는 藥物로 볼 수 있다. 心火가 不足해서 腎陽을 도와주지 못하니 腎水는 不化하게 되고, 다시 上部의 心을 遏抑여기니 水氣凌心의 증후가 나타난다. 肝의 疏泄작용과 藏血기능은 腎의 滋養에 의존하는데 腎을 제대로 滋養하지 못하면 肝의 疏泄작용과 藏血기능에 장애가 생겨 憂鬱, 失眠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 또한 肺와에 관해서는, 이는 過度한 勞傷으로 腎陰이 虛하여 陰液이 上承하지 못함으로써 虛火가 肺를 灼傷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肺腎陰虛證이 함께 나타난다. 五行으로 보면 金生水의 相克관계로서 肺와 腎이 相互 影響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合歡과 관련한 症狀들은 心與腎, 肝與腎, 肺與腎 등의 관계에서 보듯이 他臟腑가 腎臟과 的 機能失調로 인해 나타나므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合歡을 補腎하는 藥物에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으며 安神하면서도 活血의 작용이 강하여 心氣入腎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柏子仁은 養心安神, 潤腸通便하는 效能을 지니므로 水虛火盛하여 心腎不交한 증상을 다스린다. 그리고 醫學入門에서는 柏子仁을 溫藥으로 분류하였으나 모든 本草書들은 氣味를 대부분 甘平으로 기술하고 있다. 李梴이 平藥을 溫藥에 配屬시킨 것은 李梴이 本草의 分類를 네 가지(補瀉溫涼)로만 나누었는데 平藥도 어딘가에는 配屬을 시켜야 했으며, 李梴의 主觀的인 생각이 가미되어 溫藥으로 分類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涼藥을 溫藥으로 分類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平藥을 溫藥으로 分類한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柏子仁을 溫腎하는 藥物로 配屬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心氣入腎한 증상을 다스릴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竹瀝의 效能중에 中風과 관련한 내용이 많은데 醫家들은 陰虛火旺으로 津液이 바짝 타들어가 痰이 生成되는데 이 痰이 心竅를 막아서 생긴 것으로 보았다.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化痰藥으로 分類하였고 清熱豁痰의 效能이 있는데, 熱痰은 寒해야 다스릴 수 있으니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는 竹瀝을 涼腎藥에 配屬시켰으며 藥性이 서늘하여 心熱入腎한 증상

을 다스리는 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이와 같이 龍骨·五味子·蓮肉·牡蠣·小草·當歸·合歡·柏子仁·竹瀝은 他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로서 腎臟인 本臟에도 作用을 하게 되니 『醫學入門·臟腑條分』중 腎臟의 藥物로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V. 結論

『醫學入門·臟腑條分』에 기재된 腎臟에 作用하는 藥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本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은 熟地·枸杞·鹿茸·鍾乳粉·龜板·虎骨·鎖陽·山茱萸·杜仲·山藥·知母·芡實·覆盆子·桑螵蛸·牛膝·玄麥·石楠·五加皮·楮實·苦茗·猪苓·琥珀·澤瀉·茯苓·沈香·菟絲·附子·乾薑·肉桂·巴戟·葫蘆巴·補骨脂·烏藥·石南藤·黃柏·牡丹皮·地骨皮 등 모두 37종이다.
2. 本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中 補하는 藥物은 熟地·枸杞·鹿茸·鍾乳粉·龜板·虎骨·鎖陽·山茱萸·杜仲·山藥·知母·芡實·覆盆子·桑螵蛸·牛膝·玄麥·石楠·五加皮·楮實 등 19종으로 대부분 補腎과 固精縮尿하는 效能이 있는 藥物로 구성되었다.
3. 本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中 瀉하는 藥物은 苦茗·猪苓·琥珀·澤瀉·茯苓 등 5종으로 利尿, 利水滲濕하는 藥物로 구성되었다.
4. 本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中 溫하는 藥物은 沈香·菟絲·附子·乾薑·肉桂·巴戟·葫蘆巴·補骨脂·烏藥·石南藤 등 10종으로 補陽, 溫腎藥과 溫裏藥으로 구성되었다.
5. 本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中 涼하는 藥物은 知母·黃柏·牡丹·地骨皮·玄麥 등 5종으로 清熱의 效能이 있는 藥物로 구성되었다.
6. 本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中 知母와 玄麥은 清熱滋陰하는 藥物로서 補와 涼을 동시에 兼하였다.
7. 他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은 龍骨·五味子·蓮肉·牡蠣·小草·當歸·合歡·柏子仁·竹瀝 등 9종이다.
8. 他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의 分析은 다음과 같

다.

龍骨은 肝虛入腎한 증상을 다스린다.
五味子是 肺虛入腎한 증상을 다스린다.
蓮肉은 脾氣入腎한 증상을 다스린다.
牡蠣은 肝氣入腎한 증상을 다스린다.
小草은 心冷入腎한 증상을 다스린다.
當歸는 肝虛入腎한 증상을 다스린다.
合歡은 心氣入腎한 증상을 다스린다.
柏子仁은 心氣入腎한 증상을 다스린다.
竹瀝은 心熱入腎한 증상을 다스린다.

參考文獻

1. 河北醫學院校釋. 靈樞經校釋(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1.
2. 李梴. 醫學入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1, 2, 3, 9, 11, 12, 13, 18, 19, 23, 25, 26, 28, 31.
3. 滑壽原注.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編譯. 難經本義.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1.
4. 素問研究集成. 黃帝內經·素問. 大邱. 金星印刷社. 2001. p.1, 7, 8, 9.
5.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
6. 裴秉哲譯. 今釋 黃帝內經 靈樞. 서울. 成輔社. 1978. p.8, 9.
7. 主編 凌一揆.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9, 10, 12, 13, 14, 15, 16, 17, 19, 20,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6, 37.
8.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 10, 11, 12, 14,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30, 32, 34, 35, 36.
9.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9, 10, 11, 12, 14,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30, 32, 34, 35, 36.
10.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0, 11, 15, 16, 18, 20, 21, 27, 32, 35, 36, 37, 38.
11. 汪昂.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10, 13, 15, 16, 17, 22, 23, 25, 26, 29, 32, 36, 37.
12. 許浚. 東醫寶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10, 12, 21, 22, 23, 26, 27, 29.
13.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0, 11, 12, 14, 15, 16, 17, 20, 21, 22, 23, 24, 25, 27, 28, 29, 30, 31, 32, 33, 36, 37.
14.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0, 11, 13, 14, 15, 16, 17,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5, 36.
15. 寇宗奭. 本草衍義. 서울. 醫聖堂. 1994. p.11, 15.
16. 陳嘉謨. 本草蒙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11, 15, 19, 31, 34.
17. 李東垣. 用藥珍珠囊.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13, 21, 24, 28, 30.
18. 黃元御. 玉楸藥解. 黃元御醫書11種 下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5, 25.
19. 吳儀洛. 本草從新. 서울. 杏林書院. 1972. p.12, 14, 23.
20. 雷斅. 雷公炮炙論. 中華醫書集成 第5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13, 17.
21. 李芳遠. 本草精要. 서울. 一中社. 2002. p.33
22. 五大·李珣 共著. 海藥本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21, 32.
23. 嚴潔·施雯·洪煒 共著. 得配本草. 中華醫書集成 第5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33.
24. 張介賓. 景岳全書(二). 서울. 驪江出版社. 1987. p.16.
25. 王好古. 湯液本草. 서울. 醫聖堂. 1994. p.18.
26. 張元素. 醫學啓源. 中華醫書集成 第22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18, 20, 22, 23, 24, 28, 29.

27. 成無已. 申榮日, 金善鎬 譯. 傷寒明理論. 서울. 周珉出版社. 2003. p.20.
28. 東洞吉益. 藥徵. 皇漢醫學叢書 第14券. 서울. 平凡出版社. 1975. p.20.
29.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73. p.24, 25, 34, 35, 36.
30. 金完熙·崔達永. 서울. 臟腑辨證論治. 成輔社. 1995.
31. 張隱庵·葉天士·陳修園 共著. 本草三家合註. 서울. 醫道韓國社. 1976. p.30, 37.
32. 黃宮綉. 本草求真. 서울. 醫聖堂. 1999. p.35, 38.
33. 杜鎬京. 東醫腎系內科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9.
34. 秦伯末. 秦伯末醫學名著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3.
35.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1999.
36. 杜鎬京. 臨床腎系學研究. 서울. 成輔社. 1995.
37.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1998.
38. 最新中韓詞典. 康寔鎭·南德鉉·李相度·張皓得 編. 黑龍江.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2001.
39. 鄒長青. 中藥袖珍辭典.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6. p.18.
40. 主編 段富津. 方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5. p.34.
41. 中國中醫研究院、廣州中醫學院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17, 18, 27.
42. 鄒長青編著. 中藥袖珍辭典. 湖南省.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6. p.11.
43. 江涵暉. 筆花醫鏡.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21, 39.
44. 編註醫學入門. 李槿.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21, 39.

